

第 51 號

第175回 臨時會

第176回 臨時會

第177回 臨時會

第178回 臨時會

第179回 第1次 定例會

議政報告書

(2009. 2. 10 ~ 2009. 6. 30)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目 次

第175回 臨時會 3

第176回 臨時會 57

第177回 臨時會 93

第178回 臨時會 141

第179回 第1次 定例會 175

第175回 臨時會

I. 集會 및 議事日程	9
1. 集 會 / 9	
2. 會期 및 開議日數 / 9	
3. 議事日程 / 10	
II.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5
1. 接受現況 / 15	
2. 處理現況 / 16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9	
4. 繫留議案 / 22	
III. 市 政 質 問	23
1. 質問現況 / 23	
2. 質問內譯 / 24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35
1. 請 願 / 35	
2. 民 願 / 37	
V. 5分 自由發言 現況	38
VI. 本會議 傍聽 現況	56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희망찬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첫 의정을 여는 175회 임시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대구시 의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시면서 특히 지난 연말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로해 주시고, 또 민생현장을 찾아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역유치를 위해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국회와 정부의 중요관계자를 방문하여 지역의료인프라 구축실태와 지역민의 열망 등을 설명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유치의 당위성을 각인시켜 주시고 돌아오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

지난해에 이어 기축년 새해 키워드 역시 경제입니다. 대구시의 당면과제도 지역경제 회생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체념이고,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의지라는 명언처럼 250만 대구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직하리만치 성실한 소의 뜻심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한다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대구의 힘찬 도약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2009년 희망차게 시작하였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한 가운데 용산 철거민 사건 발생과 부녀자 연쇄살인범의 검거는 국민들을 한층 더 놀라게 하였고, 우리 지역에서도 2004년에 이어서 지난 1월 또 다시 1-4다이 옥산이 상수도 원수에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여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가뭄에 따른 수량부족이 한 원인이라는 하나 시민들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돗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일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에 안동댐을 대구 상수원으로 하는 광역 상수도 건설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도되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시의 계획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수원을 안동댐으로 하는 대책이 원수대금 상승에 따른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 낙동강 수량 감소에 따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이 예견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식수와 생활용수 분리 공급만이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다양한 제안들과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

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겨울 가뭄이 예상롭지 않습니다. 이번 가뭄은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예년의 40%, 남부지방은 대부분 2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식수난과 용수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식수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봄철 산불예방과 영농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와 더불어서 산불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서 금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중장기 신규사업에 많은 건수의 예산을 반영하여 향후 안정적인 국비확보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확대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철저히 하여 지역현안사업이 국가재정운영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정부의 금번 고위직 인사 시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전진 배치되면서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에 지역의 학교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대입합격자 발표 결과 지역수험생들의 명문대학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수험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그리고 1,365억 원의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금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 등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조기집행과 가시적인 내수경기 촉진이
가능한 예산인지,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신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지를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年 2月 10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나종기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9. 1. 30
- 개 회 일 : 2009. 2. 10
- 폐 회 일 : 2009. 2. 24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5일 (누계 : 373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3일 (누계 : 78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豫算 決算	其他
今 回	19	16	1	4	4	3	4	2	1
累 計	445	378	25	83	83	81	106	40	27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2.10(화) 10:19	1.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次	2.11(수) 10:08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5분 자유발언의 건
3次	2.24(화) 10:04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호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서 실내게이트볼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3次	2.24(화) 10:04	1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13(금) 17:03	1.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3.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13(금) 10:07	1. 대구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次	2.16(월) 10:10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관리실, 정책홍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3次	2.17(화) 10:07	1.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4次	2.18(수) 10:14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教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13(금) 10:04	1. 업무보고의 건 -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次	2.16(월) 10:06	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3. 성서 실내 게이트볼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4. 업무보고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업무보고의 건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3次	2.17(화) 10:06	1. 대구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여성국, 대구의료원,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4次	2.18(수) 10:07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13(금) 10:03	1. 2009년도 업무보고 -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신기술산업국 소관
2次	2.16(월) 10:02	1. 2009년도 업무보고 -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3次	2.17(화) 10:05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13(금) 10:06	1. 업무보고의 건 -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대구도시공사, 도시 주택국, 환경녹지국 소관
2次	2.16(월) 10:05	1. 업무보고의 건 - 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상수도사업 본부, 환경시설공단 소관
3次	2.17(화) 10:06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4次	2.18(수) 14:10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19(목) 10:09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 입·세출예산안
2次	2.20(금) 11:05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 입·세출예산안(계속)

○ 2011世界陸上選手權大會支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2.23(월) 11:00	1. 업무보고의 건 -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Ⅱ．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域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5	10	6	3	1	5	
累 計	427	199	100	79	20	196	32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5	7	4	3		1	2		5
	累計	427	227	58	160	9	29	54	11	106
議 會	今回	10	5	4	1					5
	累計	199	67	25	42			23	11	98
大 邱 廣域市	今回	5	2		2		1	2		
	累計	196	140	30	101	9	17	31		8
教育廳	今回									
	累計	32	20	3	17		12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5	14	1			
	누계	427	424	325	90	1	8	3
조 레	금회	7	7	7				
	누계	227	225	144	73	1	7	2
예산·결산	금회	1	1		1			
	누계	29	29	15	14			
도시계획	금회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2	2	2				
	누계	54	53	52			1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11	11	10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5	5	5				
	누계	91	91	91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5	14	1			
	누계	415	415	325	90			
조 레	금회	7	7	7				
	누계	217	217	144	73			
예산·결산	금회	1	1		1			
	누계	29	29	15	14			
도시계획	금회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2	2	2				
	누계	52	52	52				
건의·결의	금회							
	누계	11	11	10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5	5	5				
	누계	91	91	91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都市 計劃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0	7	1		2			10	9	1			
	누계	303	234	29	8	32			300	202	89	2	7	3
운영	금회	1	1						1	1				
	누계	29	29						29	23	6			
행정 자치	금회	3	2			1			3	3				
	누계	90	74			16			90	73	15		2	
교육 사회	금회	4	3			1			4	4				
	누계	63	55			8			62	46	13		3	1
경제 교통	금회													
	누계	40	33			7			39	18	19		2	1
건설 환경	금회	1	1						1	1				
	누계	51	43		8				50	26	22	2		1
특별	금회	1		1					1		1			
	누계	30		29		1			30	16	14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92	2009년도대구광역시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예결위 (공통)	○기정예산액 : 4,752,800백만원 ○추경예산액 : 4,889,307백만원 ○증감액 : 136,507백만원	수정 (2.20)	수정 (2.24)
2993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권기일 의원 외5인	운영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6일에서 11월 10일로 개정 하고, 조문의 내용을 개조식에서 서술형으로 변경	원안 (2.13)	원안 (2.24)
2994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대구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 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록보상금을 현실화 하고 처분보상금을 상향조정함	원안 (2.13)	원안 (2.24)
2995	2009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시장	행정 자치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원안 (2.13)	원안 (2.24)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96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송세달 도재준 의원 외10명	교육 사회	○인물동산과 공공 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 (2.16)	원안 (2.24)
2997	성 서 실 내 게이트볼장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시장	교육 사회	○성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서비스제공 및 시비부담을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원안 (2.16)	원안 (2.24)
2998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전문가 등의 심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원안 (2.18)	원안 (2.24)
2999	대구광역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권기일 의원 외6인	행정 자치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안 (2.13)	원안 (2.24)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 者	委員 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00	대구광역시 효 행장려및지원 에관한조례안	김영식 의원 외7인	교육 사회	○효행문화 및 경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원안 (2.16)	원안 (2.24)
3001	대구광역시 대 표도서관및도 서관정보서비 스위원회운영 조례안	최문찬 김덕란 의원 외 6인	교육 사회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대 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원안 (2.16)	원안 (2.24)
3002	제 175 회 대구 광역시의회임 시회회기결정 의건	의장	본회의	○회기 - 2009.2.10~2.24		원안 (2.10)
3003	시장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 의건	이윤원 의원 외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원안 (2.10)
3004	회의록서명의 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이동희, 박돈규		원안 (2.10)
3005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선 임의건	의장	본회의	○위원장 - 류병노 의원 ○부위원장 - 김덕란 의원 ○위원 - 김대현, 나종기 권기일, 전성배 박돈규, 이재술 이경호 의원		원안 (2.10)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 者	委員 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06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상 임 위원장	본회의	○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별 결과 보고서 채택		원안 (2.24)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 업특별회계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2990	대구뮤지컬전용극 장민간투자사업채 택동의안	교육사회		2008.12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3名(累計 : 94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4	4	
누 계	157	148	9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4	157
일 반 행 정		16
문 화 체 육	1	13
교 육		9
경 제 · 산 업		29
환 경 · 녹 지		10
상 · 하 수 도	1	5
보 건 · 복 지		6
교 통	1	23
도 시 계 획	1	15
건 설 주 택		25
소 방		1
기 타		5

2. 質問内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1.지난 2004년 1,4-다이옥산의 수질오염 파동 이후 2009년1월12일 다시 낙동강 하천수에서 $63.31\mu\text{g/l}$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고 계속적으로 10일이상 기준치 $50\mu\text{g/l}$를 넘겼으며 20일에는 매곡정수장의 정수된 수돗물의 1,4-다이옥산 농도가 $54\mu\text{g/l}$로 검출된 바 있음. 대구시의 물 행정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임. 1,4-다이옥산에 노출된 수돗물은 10분간 센 불에 끓여서 마시면 90% 정도 기화로 제거된다는 공지를 한 바 있는데 이 주장은 어디에서 어떠한 근거로 제기된 근거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람. 2004년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1,4-다이옥산 제거를 위한 전처리공정 도입은	○지적한대로 상수도본부의 구조조정은 즉각 단행하도록 하겠음. 상수도본부의 조직과 인력은 수량, 시설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대폭 수질관리조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음. 해외연수 등은 대폭 정비를 해서 수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으로 전환을 하고 불요불급한 인력은 앞으로 축소 내지 수질 쪽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구조조정은 즉각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림. 앞으로 원수수질검사 그리고 정수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음. 지금까지 원수는 54개 항목을 수질검사하였으나 금년에 65개 항목, 2012년까지는 95개 항목으로 늘려나가겠음. 그리고 정수수질검사는 금년 30개 항목에서 175개 항목으로, 2012년까지는 250개 항목으로 정수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질검사를 도입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새로운 미량 유해물질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모니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음. 더불어서 전오존처리 시설, 고도산화처리공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물론이고 곧 가동될 문산 정수장까지도 새로운 시설설비를 시도·보완·노력하지 않았고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임.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상수도본부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질책과 시민단체 등 물을 걱정하는 많은 주장들에 대해 대구시는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긍하고 임해 나가야 할 것임. 물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수계 파동 이후에 어떤 역할과 어떤 제안을 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한편, 환경부에서 첨단 막여과정수방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계획이나 검토가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다른 시·도에서는 고도	환경부와 경상북도, 구미시 하수처리장에 고도정수처리를 해 주도록 요청했고, 배출처리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시설도 보강하도록 요청하였음. 그리고 오염물질이 만약에 방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오염물질 중단 긴급 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환경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를 하였음. 이와 더불어 중장기대책으로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수저류지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낙동강변에 약 6일분 300만 톤의 비상원수를 저류해서 오염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우선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원수저류지 설치를 건의했고 이번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낙동강 수계 이외에 상수원의 가이드라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있음. 막여과정수처리 도입문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대구시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에서도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형실험을 실시하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정수처리기술 중 고도 산화공정이나 막여과정 수방식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대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물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용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에게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임. 대구시민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원수로 공급되는 물이든 음용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같은 고품격의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음. 공공부문은 이러한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 대구시에서는 먹는 물로 다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있는 중임. 1,4-다이옥산을 10분 정도 끓이면 90%가 제거된다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 문제는 지난 2004년 다이옥산이 검출된 이후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에서 2004년 10월, 7일간 자체실험을 한 결과 도출된 결론이고, 또 다른 전문기관고도 협의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대구시민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1.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도시용지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획일적인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처럼 끊임없는 논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첫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정비가 도시관리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며, 둘째, 도시성격이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상황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함. 첫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용토지와 산업용지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구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용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추가 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변경수립계획에 관한 추진계획과 관련 10% 내지 30%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 50%까지 추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조정가능지 추가지정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 본래의 취지와 조정가능지역 선정기준을 감안해서 현장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부서와 구·군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대구경북연구원에 광역도시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사실상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터무니없이 미흡한 실정으로 원인 및 개선책은? 둘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조치와 관련 추가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의 내용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셋째,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과정은 선계획 수립 후 주민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주민참여제도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왔는데, 주민의견을 미리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넷째, 제도개선이나 민원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어떠한 건의나 개선노력이 있었는지? 다섯째, 오랜기간 동안 재산상의 침해와 생활상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위한 계획수립과정에서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함. 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임.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 이와 더불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유형 확대 건의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폐지를 건의함. 아울러 조정가능지역 추가해제 허용범위를 현재 해제가능 총량의 10%에서 30%로 되어 있는 것을 30%에서 50%까지 확대해 주도록 지침을 개정·건의함. 또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음.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전년도 사업집행 실적을 감안해 우리 시에 2008년 이월액 32억 8,000만 원임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의 불편을 감수해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행위제한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제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고려해서 6억 9,000만 원이 배정되었음.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이월액이 많이 된 사유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용지보상과 도시계획결정을 수반하여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규모가 큰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토지보상, 수용절차 등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의 이월액이 많았음. 홍보시스템과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방안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달라진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구·군 민원실 비치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반상회와 통장회의 등에도 적극 홍보토록 하며, 우리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달라진 제도라는 홍보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추가설정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따른 궁급한 사항이나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상담 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음. (도시주택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2.고속도로변 미관개선과 관련 도심통과구간에 주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운전자에게 조망을 가리지 않고 주변과 변화된 환경의 일부가 되도록 지역 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컬러풀 대구의 지역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도시경쟁력 등에 무관심해 획일적, 기능주의적인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시의 미관을 훼손시키고 주변 경관을 느끼고 감상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방음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고속도로변 경관개선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과 도로공사와는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	○고속도로변 방음벽 미관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 문양 디자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도안을 하여 자체 디자인 평가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간의 특성을 살려 여러 형태의 문양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음. 또한, 고속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방음벽 후면에 수목 식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방음벽의 미관과 투명 방음벽 부분 확대 설치 등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음. 고속도로변 소음 증가에 대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방음벽 설치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이 되도록 높이와 길이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장구간의 방음벽은 3.5m에서 11.5m 높이로 총 길이 29km를 설치 중에 있음. 화원읍 구라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인근 140m 방음벽의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도로구역변경 고시일보다 사업 주택승인일이 늦어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전성배	고속도로의 확장 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방지 대책 또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임. 화원읍 구라리 일부 구간에 방음벽 미설치 구간이 있어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증가에 왕복 6차선 도로의 교통량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까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조차 설치되지 않는다면 주변 지역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 질 것이 충분히 예상됨. 소음증가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되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후발 시행자인 주택사업자가 설치토록 한국도로공사 업무처리규정에 있음. 그것의 규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기간인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최근에는 건설사업단장의 우리 시 방문 시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간곡히 부탁을 했음.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건설방재국장)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이윤원	1. 2010년 세계소방환경기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인 각종 국제행사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의지를 알아보고자 함. 먼저, 도시의 경쟁력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척도가 도시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함. 우리 대구도 각종 국제행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내·외국 관광객들을 지역에 유치하여 우리 대구를 세계 속에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부족한 점이 더 많았으며, 아직까지 우리 대구만의 독특한 관광객 유치 전략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은 미흡한 실정임.	○우리 대구가 지난 수십 년간 관광, 관광 매년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최근 몇 년간 관광객 유입 숫자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함. 그래서 금년 초에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그동안 시책에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음. 이번 계획은 좀 내실 있게 수요자 중심으로, 특히 국내·외 여행사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두 번째는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공사, 중국관광공사를 좀 끌어들이어서, 이런 정부를 대표하는 관광기관을 좀 끌어들이어서 활성화하는 방법, 세번째는 카지노 문제하고 면세점 문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관광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발상의 전환, 실효성 있는 관광진흥정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음. 관광공사 설립 여부는 다른 지자체 관광공사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서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윤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의 노력은 다음의 몇 가지 점이 부족하여 성과 도출이 낮을 것으로 생각함. 첫째, 문화마인드 부족으로 관광아이디어 상품 개발과 관광정책 기획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만 있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뒷받침은 별로 없으며, 세 번째, 관광업무의 대부분을 대구시관광협회에 의존하다 보니 협회의 운영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네 번째, 문화관광 관련 시책을 올바르게 추진할 자원 마련대책이 부족함. 대구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 및 질문을 하고자 함. 첫째, 대구시의 관광 관련 행정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광행정업무의 일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가칭 대구관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역 공동브랜드 상품인 쉬메릭 판매전략에 대하여 지역브랜드 우수제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판매 확대를 위해서 관광정보센터 내에 있는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피아 쇼핑점을 관광코스에 편입시키고, 관광객들을 직접 판매장에 안내함으로써 값싸고 질 좋은 쉬메릭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협회운영과 제도개선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 대표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화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 보조사업과 수탁사업의 중단과 함께 새로운 보조사업자의 모색이나 대구관광공사 설립 등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공무원들의 문화적 마인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행정전문가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많은 문화업무가 재단으로 위탁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윤원	둘째, 대구시 공동브랜드인 쉬메릭 상품에 대한 새로운 판매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셋째, 대구시관광협회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복안은? 넷째, 과거의 하향식 집행에 기반을 둔 문화행정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문화단체 등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문화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문화행정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 마지막으로 2009년도 대구시 관광문화재과 예산은 191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0.58%에 불과하며,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 동안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약 2조 7,000억 원으로 그 중 관광분야 예산은 1.6%인 455억 원에 불과하여 향후 관광자원 개발 등에 소요될 예산에는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것이므로 앞으로 대구의 문화예술행정은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초빙해 오거나 채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전문기관에 장·단기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여 우리 대구가 문화의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문화예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음. 관광자원 개발 등에 소요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분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관광문화재과의 예산추이를 보면 2007년도 121억 원, 2008년도 187억 원, 2009년도 191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되고 있음. 향후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시비 투입을 증대하면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지역성장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대경권의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우리 시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국장)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衛生	上下水道	道路交通	環 境	都市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自治	教育社會	經濟交通	建設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5				1	3	1

4.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查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 本會議 審查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產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15				1	2	1	3		8
累計	305	14	21	8	14	75	48	71	7	47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15	1	1	1	4		3	1	2	2
累計	305	29	32	11	44	36	70	31	30	22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15	12	10		2		3
累 計	305	231	136	13	29	53	74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15	14	1		
累 計	305	293	3	3	6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7		1	1	1	1		1		2
累計	32	1	9	2	3	3	4	4		6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0	차영조 의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제난을 위기로 간주하고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구시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은 2009년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기 불황 시 경기조절 수단으로 주로 시행하여 온 정책임. 따라서 조기집행이 예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꼭 짚고 가야 할 몇 가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첫째는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라는 것임. 재정 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집행일정보다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0	차영조 의원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경제부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인데 지금 대구시의 조기집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가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 집행이 그 목적인 것처럼 보임. 대구시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재정집행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몇 배 증가하였고, 집행률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에 있다는 것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음. 집행부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대구시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다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말 그 자체에 얽매어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집행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림. 둘째,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 등을 변경시켜 두어야 함.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되는 여러 대책들이 임시방편으로 제시되거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제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임.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일관된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아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0	차영조 의원	셋째,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 확보문제임.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요건인데, 지금 대구시의 상황으로 보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섬.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2009년도 예산 중 62%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며, 조기집행 목표액이 5조 1,000억 원 정도임. 대구시는 추경예산을 조기편성하고, 국가의존재원을 조기확보하고, 각종 전출금 등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자금압박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대구시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공사나 용역 발주뿐만 아니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도 지출하여야 하기에 대구시가 세운 상반기 62%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예산 집행에 있어 자금경색이 있을 경우 일시차입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자부담 또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임. 대구시 현실에 맞는 조기집행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넷째,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것임. 건설공사 조기발주와 함께 도급사에 공사 선급금 등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원도급 업자들이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을 위한 선급금 지급 수령을 기피해 하도급 업체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0	차영조 의원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무리 조기집행을 강조해도 돈이 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자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구시는 금년도 예정된 건설사업 중 91% 정도를 상반기 내 조기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기에 동시다발적인 발주로 자재 품귀 및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인건비 또한 상승하고 있어 모처럼 맞이한 호기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됨. 따라서 각종 사업 조기발주에 따른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재정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함. 재정 조기집행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집행하였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무조건 활성화되지는 않음.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임. 대구시의 재정 조기집행이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대구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5	박부희 의원	○ 중증장애인 등이 공중목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 및 불편함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정책을 촉구하고자 하며, 2008년 12월 말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0만 6,47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 7,046명임. 작년 4월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목욕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공중목욕탕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목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수성구장애인복지관, 남구사회복지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달성군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서 저소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시설을 완비한 목욕시설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달구벌 종합복지관이 유일하고, 매주 2일 화.수간 자원봉사자와 함께 입욕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1,500원으로 알고 있으나 목욕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신체 중증장애인 1만 2,000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5	박부희 의원	여 명의 청결한 위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중구 남산복지관에서 연간 2,300여만 원으로 2,400여 명에게 입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나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5개 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이 초기에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목욕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무료입욕권을 제공,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설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이 줄어드는 등 목욕탕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나마 지산과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목욕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운영이 어려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무료목욕권은 폐지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제도는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 목욕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함.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목욕차량의 확충과 대구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였던 공중목욕탕에 대한 노후시설의 정비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15	박부희 의원	목욕시설 운영을 재개하여 장애인 등에게 무료입욕권 및 할인권 발부 등의 장애인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첫째, 거주지에 가까운 공중목욕시설에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성과 출입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둘째, 목욕시설의 출입이 용이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해도 신체적 부자유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몸을 담그거나 씻는 행위자체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목욕서비스 도우미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봉사요원 또는 공공근로와 같은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봄. 셋째, 무료목욕이나 적은 비용으로 공중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노인복지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로우대업소를 지정하여 노인들의 이·미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처럼 장애인들에게 구·군의 목욕시설 중 1개소 정도를 장애인 우대 목욕탕으로 지정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20	류규하 의원	○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존 건물의 접근성과 주차장 문제, 이면도로 통행과 위축된 도심상권 활성화가 지적된 바 있으나,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 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동성로 일부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중앙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선정되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기능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주변 건물 상태를 살펴보면 건물층수는 낮고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어 건물의 외관은 허름하며 쓰레기더미처럼 보이는 폐자재를 옥상에 올려놓아 환경 또한 매우 불량한 실정임. 도로는 명품도로로 조성되고 있지만 기존 소규모 건축물은 개·보수만 유지될 뿐 상인들은 건축물 신축을 꺼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임. 소규모 필지이다 보니 상가 건물주가 지하나 건물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그 설치비용과 필지면적이 턱없이 부족함. 그렇다고 건물주로서는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 처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주변 지주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면제해 달라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20	류규하 의원	진정했지만,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되지 않았음. 또한,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해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첫째, 상인들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중구청에 납부해 중구청이 그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임. 둘째,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선정할 때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보행전용도로 지정 등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도심지역에 승용차 진입을 금지해 부설주차장 관련 규제를 100%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면제 등의 제도 정비와 함께 추진할 때 지주들이 건물에 신규 투자하여 도심개발과 대중교통전용지구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도심상권 활성화와 자동차 위주 패러다임에서 보행자 위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상가 건물의 신축을 유도하고 이면도로 교통을 개선하면 도심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여겨지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25	김영식 의원	○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대구시의 21세기 성장과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특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할 성장브레인이자 R&D 중심기능을 수행할 연구시설로서 명실공히 국가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동남권 R&D 중추기관으로서 대구가 IT, BT, NT 등 융합기술의 발전을 통한 첨단과학 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과학적 인재가 뒷받침되고,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진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임. 이런 최고의 교육진과 연구진을 영입하고 이분들이 대구시의 시민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주환경과 자녀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함. 다행히도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완료될 시기가 되면 각종 SOC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타깝게도 테크노폴리스가 위치한 달성군 지역은 교육여건이 바닥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임. 대구과학기술원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테크노폴리스 내 과학고 유치를 통한 교육기관 연계 집적화가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11(수) 15:25	김영식 의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의 우수 인재를 조기에 지역 내 산업 및 교육기반과 연계시킴으로써 인재 육성과 유출 방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과학고가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하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과학고 학생들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과 시설을 활용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인력과 현장에서 교류할 수 있으며, 이들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밟는다면 고급인력의 유입과 유출을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함. 교육인프라를 갖추지 않고서는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며, 테크노폴리스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술·과학기술의 요람이 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지역 과학산업 발전의 핵심 현안인 세계 수준의 인력 양성과 유치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테크노폴리스 내의 과학고 입주는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05	정순천 의원	○지난 16일 오후 6시12분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87세를 일기로 선종하셨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추기경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 임. 경남 산청군에는 성철 큰스님이 열반에 드신 뒤 생가가 복원되고 유품전시관을 꾸미는 한편으로 시간 밖의 절이라는 심오한 뜻을 지닌 겹외사가 건립되었음. 마침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중구 남산동에서 태어나, 대구·경북에서 성직생활을 하신 우리 대구가 낳은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심. 대구시에서는 가톨릭 교계,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추기경께서 나신 생가를 복원하고 가톨릭 교계로부터 유품 등을 제공받아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지? 아울러 이번 기회에 향토출신의 애국지사·구국항일투사·문필가·예술가·종교인·기업가·체육인 등 수많은 유명인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함. 과거의 지나간 역사에서 좋은 사실만 발췌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뀔 수는 없으며, 선악의 역사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찬양과 비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하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05	정순천 의원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 과 과오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기념사업이 필요함. 기념사업의 참다운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함. 아무쪼록 가톨릭 교계, 중앙정부의 이해·협조·지원을 얻어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가복원·기념관건립 등 기념사업이 조속히 주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함. 아울러, 다시 한 번 우리 대구시민이 향토출신의 애국지사·구국항일투사·문필가·예술가·종교인·기업가·체육인 등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유명인사에 대한 생가복원·기념관 건립·기념일 제정 등 기념사업을 통해, 대구시민으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타 도시의 결정을 거울삼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10	김충환 의원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구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발표하면서 오는 2011년 개교예정인 대구 제2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5개 구·군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교육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참교육을 갈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해야 함. 대구과학특수목적고등학교 위치 선정 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하고 선정기준 항목을 협의해서 금년 4월 중에 학교 위치 선정을 마치겠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수요의 정도, 도시 균형발전, 미래과학 인재육성 등 다양한 충족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임. 몇 해 전 이 자리에서 대구 부도심의 균형발전이 대구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도심별로 특수목적고, 과학고 등을 연차적으로 설립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 가자고 주장한 바 있으나, 몇 년 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음. 북구 칠곡 지역은 현재 인구는 약 2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호, 사수지구, 학정지구, 도남지구 등 잔여 택지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10	김충환 의원	개발이 끝나면 30만 명이 넘는 거대 부도심으로 성장하게 되며, 경북대 제2부속병원, 산재병원 등의 건립이 확정되어 있고, 2014년에는 도시철도 3호선, IT융합산업진흥원이 건립될 예정이며, 구미의 거대한 미래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IT, BT, NT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인접 도시로서 20~40대 중반의 인구 비중이 절반이 넘어 자녀의 중등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아 좀 더 객관적이고 광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2과학고의 유치는 북구 철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이번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 제2과학고 유치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임. 이번 결정이 하나의 특정지역 발전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대구시와 대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나은 삶의 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심사숙고한 결론을 기대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15	이동희 의원	○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적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질문한 바 있으며, 파동은 지역의 특성상 폭이 불과 1km도 되지 않는 협곡의 주거밀집 지역으로 4.36km의 앞산터널과 0.8km의 고가도로, 0.96km의 범물터널이 연속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확산과 분산이 어렵고, 대기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낙진되고 또한, 법이산과 앞산에 메아리되어 돌아오는 공명현상 때문에 소음공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권이 염려되므로 오염저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현재 파동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파동은 주말이면 가창방면으로 진출입하는 차량행렬 때문에 주간선도로와 신천 좌·우안 도로 등 전체도로가 마비되어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과 소음만으로도 대기오염과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에다 범물터널, 고가도로, 앞산터널 그리고 요금소의 차량가속에 따른 오염물질 등이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임.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환경기준치가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사전에 완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15	이동희 의원	주민생활 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공사에 따른 일부 비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위한 시설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밀집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간까지 장래의 환경변화를 염려하여 오염대책과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죽령터널, 둔내터널 등 짧은 통과교통의 터널 내의 환기를 위해서 수직구를 설치하는 등 대기질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차원에서 현재 파동주민 대부분은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 주민설명회에서 고가교 건설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대구시는 파동 고가교를 명품으로 설계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량으로 건설하여 대구의 명물로 만들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득하였으나, 현재 설계된 교량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된 바 없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흉물로 만들어 놓았으며, 통과교통에 불과한 고가도로 건설 때문에 고가교각 밑에 거주하게 될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차량 추락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각 밑이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을 걱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2.24(화) 10:15	이동희 의원	정하고 있음. 대구시의 예상하지 못한 도시계획행정 때문에 받는 피해 중 예를 든다면 제림가든 빌라의 경우 십수년 전 1,650 m² 부지에 16세대가 빌라 2동을 지어 잘 살고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확장 변경 됨에 따라 2동 중 1동은 도로에 편입되고 1동만 남게 되었으며, 고가도로 인근 주민들 역시 당초 대구시 도시계획상에는 고가도로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고가도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들이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토지는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구시민 전체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건설에 파동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파동주민 역시 더불어 잘 살고자하는 대구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임. 대구시는 파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원만히 잘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2.10)	2次 (2.11)	3次 (2.24)	
계	금 회	61	17	13	31	
	누 계	541				
학 생	금 회	1			1	
	누 계	46				
시 민 단 체	금 회	4	4			
	누 계	9				
일반인	금 회	56	13	13	30	
	누 계	486				

第176回 臨時會

I. 集會 및 議事日程	63
1. 集 會 /	63
2. 會期 및 開議日數 /	63
3. 議事日程 /	64
II.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68
1. 接受現況 /	68
2. 處理現況 /	69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72
4. 繫留議案 /	76
III. 市 政 質 問	77
1. 質問現況 /	77
2. 質問內譯 /	78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82
1. 請 願 /	82
2. 民 願 /	84
V. 5分 自由發言 現況	85
VI. 本會議 傍聽 現況	92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만 따사로운 봄 햇살이 움을 틔우는 새봄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제17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 시대 진정한 지도자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도자를 아쉬워하며 날씨와 밤낮, 나이와 종파가 구별 없이 밀려들었던 추모의 물결을 보면서 우리도 김 추기경님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면 고통은 반으로 줄고, 행복은 배로 커져서 이 경제한파를 이겨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75회 임시회 때 지역의 위축된 실물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의결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청년 실업 100만 명의 고용 빙하기 시대를 맞아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확산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사회 통합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3일 첨단과학 기술도시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줄 테크노폴리스의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은 하였지만, 2012년 테크노폴리스가 정상적으로 완공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총 공사비 1조 9,000억원 중에

앞으로 국비가 3천억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또 민자를 1조 4,000억원 정도 유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치권과 지역 연구기관, 상공인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테크노폴리스가 최첨단 신도시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그날까지 시 정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8회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에서는 고환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참가업체, 참관객, 상담액 등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유명 패션의류업체 진성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한데다 지역의 섬유업체들이 신규 거래선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섬유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섬유업계의 불황 탈출이 좀 더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항구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 검토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 상류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우리의 계획에 대해 다소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상북도 일부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다소 순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반박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견한 자세로 대처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폐회 기간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파문, 우리 고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던 대기업의 이전포기, 문화 창조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대구문화재단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 등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잇따른 부정적인 언론보도는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집착한 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파문은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과 부도덕성이 낳은 결과로서 그동안 교육과 충절의 도시를 표방해 온 우리 지역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새봄과 함께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새로운 각오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교육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연장된 11일간의 일정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21건의 심의 안건과 1,505억원의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또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임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
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과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年 3月 17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권기일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9. 3. 6
- 개 회 일 : 2009. 3. 17
- 폐 회 일 : 2009. 3. 27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1일 (누계 : 384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3일 (누계 : 81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豫算 決算	其他
今 回	10	8	1	1	3	1	2	1	1
累 計	455	386	26	84	86	82	108	41	28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3.17(화) 10:14	1. 제1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次	3.18(수) 14:02	1. 시정에 관한 질문 2. 5분 자유발언의 건
3次	3.27(금) 10:05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안 3.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9.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3次	3.27(금) 10:05	12.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변경안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분리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20(금) 13:37	1.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20(금) 10:09	1.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 敎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20(금) 10:06	1.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次	3.23(월) 10:03	1.대구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 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次	3.24(화) 10:04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23(월) 10:05	1.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20(금) 10:06	1.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 견청취의 건
2次	3.23(월) 10:03	1.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25(수) 10:11	1.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尖端醫療複合團地誘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3.19(목) 14:02	1.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업무보고 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변경

Ⅱ．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域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28	14	10	3	1	4	10
累 計	455	213	110	82	21	200	42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28	19	5	13	1	1	2	1	5
	累計	455	246	63	173	10	30	56	12	111
議 會	今回	14	8	4	4			1	1	4
	累計	213	75	29	46			24	12	102
大 邱 廣域市	今回	4	2	1	1			1		1
	累計	200	142	31	102	9	17	32		9
教育廳	今回	10	9		8	1	1			
	累計	42	29	3	25	1	13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8	26	23	2		1	2
	누계	455	450	348	92	1	9	5
조 레	금회	19	18	16	1		1	1
	누계	246	243	160	74	1	8	3
예산·결산	금회	1	1		1			
	누계	30	30	15	15			
도시계획	금회	1						1
	누계	9	8	8				1
동의·승인	금회	2	2	2				
	누계	56	55	54			1	1
건의·결의	금회	1	1	1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4	4	4				
	누계	95	95	95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5	25	23	2			
	누계	440	440	348	92			
조 레	금회	17	17	16	1			
	누계	234	234	160	74			
예산·결산	금회	1	1		1			
	누계	30	30	15	15			
도시계획	금회							
	누계	8	8	8				
동의·승인	금회	2	2	2				
	누계	54	54	54				
건의·결의	금회	1	1	1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4	4	4				
	누계	95	95	95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都市 計劃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2	19	1	1	1			20	17	2		1	2
	누계	325	253	30	9	33			320	219	91	2	8	5
운영	금회	1	1						1	1				
	누계	30	30						30	24	6			
행정 자치	금회	2	1			1			2	2				
	누계	92	75			17			92	75	15		2	
교육 사회	금회	11	11						11	10	1			
	누계	74	66			8			73	56	14		3	1
경제 교통	금회	3	3						3	3				
	누계	43	36			7			42	21	19		2	1
건설 환경	금회	4	3		1				2	1			1	2
	누계	55	46		9				52	27	22	2	1	3
특별	금회	1		1					1		1			
	누계	31		30		1			31	16	1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07	대 구 광 역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김덕란 의원 외5인	운영	○시의회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비지급을 제외한 단서규정 삭제	원안 (3.20)	원안 (3.27)
3008	대 구 광 역 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시장	행정 자치	○대구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Moshe Sharon : 대 구택(주)대표이사 -Suzanna Samstag : 대 성그룹 고문	원안 (3.20)	원안 (3.27)
3009	대 구 광 역 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부희 류병노 의원 외6인	교육 사회	○폭력피해 학생의 보호 및 폭력가 해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의 구축 이 필요함	수정 (3.20)	수정 (3.27)
3010	2009년도 대구 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교육감	예결위 (교사)	○예산조기집행 동참 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편성	수정 (3.24)	수정 (3.27)
3011	대 구 광 역 시 교육청공직자 윤 리 위 원 회 구성과운영등 에관한조례일 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사회	○상위법령 개정사 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 완하려는 것임	원안 (3.23)	원안 (3.2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12	대구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산업교육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원안 (3.23)	원안 (3.27)
3013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명시함	원안 (3.23)	원안 (3.27)
3014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5%감원에 따른 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조정(128명감원)	원안 (3.23)	원안 (3.27)
3015	대구광역시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 유치원, 초·중등학교 지방공무원배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원안 (3.23)	원안 (3.27)
3016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단기 산업교육시설인 대구산업학교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함	원안 (3.23)	원안 (3.27)
3017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사회	○신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원안 (3.23)	원안 (3.2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18	대구광역시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교육감	교육 사회	○법명 및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 근거조항 변경 및 “실업계학교” 명칭을 “전문계 학교”로 변경	원안 (3.23)	원안 (3.27)
3019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육 사회	○수익성 및 흥행성이 있는 우수 공연물 유치를 위한 사용료 기준 조정	원안 (3.23)	원안 (3.27)
3020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부희 류병노 의원 외7인	경제 교통	○주차장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유통상업지역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의 종류등에 제조업소의 설치근거 조항을 신설	원안 (3.23)	원안 (3.27)
302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지구지정 실적이 없는 등의 조례 제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용도 지구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	원안 (3.20)	원안 (3.27)
3025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이환 의원 외10인	교육 사회	○미술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장 명칭변경, 위원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변경	원안 (3.20)	원안 (3.2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26	대구광역시지식재산진흥조례안	권기일 의원 외6인	경제 교통	○대구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원안 (3.23)	원안 (3.27)
3027	대구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김영식 장경훈 의원 외6인	경제 교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을 유도하도록 동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원안 (3.23)	원안 (3.27)
3028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규용 김의식 의원 외6인	행정 자치	○미분양주택 취득세 등록세 75% 경감 등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원안 (3.20)	원안 (3.27)
3029	제176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회기 -2009.3.17~3.27		원안 (3.17)
303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충환 의원 외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원안 (3.17)
30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위원장 - 나종기 의원 ○부위원장 - 전성배 의원 ○위원 - 김덕란, 이재술, 박정희, 권기일, 박돈규, 정해용, 이경호 의원		원안 (3.17)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31	회의록서명의 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박부희, 지용성		원안 (3.17)
3033	첨단의료복합 단지유치특별 위원회활동계 획변경안	특위 위원장	본회의	○당초 - 08.10.21~09.3.31 ○변경 - 08.10.21~09.9.30		원안 (3.27)
3034	첨단의료복합 단지분리지정 반대결의안채 택의건	양명모 의원 외6인	본회의	○정부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분리지정 방침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힘		원안 (3.27)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 업특별회계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2990	대구뮤지컬전용극 장민간투자사업채 택동의안	교육사회		2008.12	
3022	대구광역시옥외광 고물등관리조례안	건설환경		2009.3	
3024	도시계획시설(학 교)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	건설환경		2009.3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1名(累計 : 95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1	1	
누 계	158	149	9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1	158
일 반 행 정		16
문 화 체 육		13
교 육		9
경 제 · 산 업		29
환 경 · 녹 지		10
상 · 하 수 도	1	6
보 건 · 복 지		6
교 통		23
도 시 계 획		15
건 설 주 택		25
소 방		1
기 타		5

2. 質問内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1.대구는 물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취수원의 이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지난 2월 여당의 수뇌부가 방문했을 때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면 좋겠다는 뜻을 건의하고, 이에 중앙정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으나, 이후 김천 감천이나 구미 선산지역에 보를 만들어 대구의 물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언론에 다시 보도되면서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것은 물건너 간 것처럼 보였음. 그리고 나서 지난 3월13일 지역 모일간지에 상수도 취수원을 안동댐과 김천의	○지난 1월 하순 다시 1,4-다이옥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우선 응급조치로 문제해결을 한 후 이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연구를 해왔으며, 지난 2월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원이 대구를 방문한 기회에 대구상수원 문제를 호소 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음. 그 자리에서 대구 물 문제는 중앙단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 해주셨음. 추경예산에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으로 25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당정이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였음. 대구 물 문제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는데 당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현재까지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첫 번째는 안동댐, 두 번째는 영주에 신설되는 송리원댐, 세 번째는 구미 위, 그리고 김천에서 오는 감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 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고 그 위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세 가지 안을 현재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감천, 영주 송리원댐, 경남의 함양댐 등 4개 지역을 대구시, 정치권,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이들 후보대상지 중 한 곳이 취수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보도된 바 있음. 갈팡질팡, 우왕좌왕, 임기응변, 좌고우면 등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정책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탄식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다음은 상수도본부의 혁신방안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의 일반 현황은 3부 15사업소에 정규직은 755명으로 일반직 323명, 연구직 44명, 별정직 5명, 기능직은 383명이며, 무기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림. 현재 정부에서는 3안 즉, 감천 상류지점에 보를 만들고 취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림. 어떠한 경우든 제 소신은 첫째,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물 문제 해결의 기회가 찾아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해결을 하겠음. 두 번째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림. 마지막으로 원수대가 낙동강 취수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상수도요금이 한 30% 내외로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음.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먹는 물 문제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시장)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수량 위주의 조직운영에서 탈피해서 수질관리 기능을 보강하여 조직을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김충환	계약인력은 97명으로 청원경찰 66명, 상용인부 31명으로 총원은 852명으로 되어 있음. 정수장의 생산시설은 1일 175만톤으로써 생활용수가 155만톤, 공업용수가 하루에 20만톤임. 다른 도시와 비교시 대구시보다 생산시설 용량이 많은데도 인원은 적었음. 가장 이상적인 총원계획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한 후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서 정원을 정하는 것임.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이 다른 도시와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시민들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람.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음. 도시별 인력과 비교시 부분적으로 또 기준에 따라서 또 직렬에 따라서 도시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임. 우리 대구는 상수도사업분야 근무인력은 모두 865명으로, 서울시의 경우 2,338명, 부산시의 1,22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편이고, 우리와 규모나 인구가 비슷하다는 인천의 경우는 856명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의 조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 위주로 된 본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부를 수질관리부로, 또 생산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변경하고, 업무담당 직원을 수질관리 전문직원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수질에 대한 단순한 검사보다는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연구실적이나 결과가 수돗물 생산관리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조직과 인력측면에서의 조정 문제는 금년 9월 문산정수장이 가동되면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고, 2012년까지 가창정수장을 고산정수장으로 조직을 통폐합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직의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0여 년간 324명을 대폭 감축한 바 있으며, 또 최근 3년간에도 128명을 감축하여서 많은 인력을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진단을 세밀히 하고, 신규 수요업무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조정하고 재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내부혁신 방안으로는 지난 89년부터 행정직은 기업행정직렬, 토목직은 수도토목직렬을 구분해서 시와는 독립적으로 인사운동을 해 왔습시다마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일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시와 인사교류를 확대해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며, 아울러서 끊임 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개혁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변화 유도해 나가겠음. 더욱이 앞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상수도사업본부장)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 衛生	上下 水道	道路 交通	環 境	都市 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5				1	3	1

4.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查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 本會議 審查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產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11	1			2	1	2	2		3
累計	316	15	21	8	16	76	50	73	7	50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11		2		3		4		1	1
累計	316	29	34	11	47	36	74	31	31	23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11	9	7			2	2
累 計	316	240	143	13	29	55	76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11	11			
累 計	316	304	3	3	6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3				2					1
累計	35	1	9	2	5	3	4	4		7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18(수) 16:12	정순천 의원	○ 중증장애인의 필수적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수리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2008년 12월 말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0만 6,475명으로 이들 중 지체와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5,400여명은 이동보조기구가 없이는 사회참여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였지만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지원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의 보급은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음.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18(수) 16:12	정순천 의원	그러나 대구시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전동휠체어 등의 배터리, 모터, 타이어 등 부품교체비나 수리비를 지원하는 체계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는 전동휠체어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고 말았음. 대구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및 재활협회에 시 보조금 5,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게하고 있고 경정비업체를 통해 제한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직접 부품을 구입하거나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마찬가지임. 선진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보장구 수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방치되어 버리게 되고 그 시간만큼 자신의 장애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며,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현실임. 그래서 장애인의 현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18(수) 16:12	정순천 의원	첫째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등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 기간동안 장애인의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긴급대여용 전동휠체어를 상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함. 비용은 얼마 들지 않지만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함. 둘째, 도로주행중의 불시고장으로 인해 난감해 하는 장애인을 즉각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도우미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긴급호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용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그림의 떡처럼 여기지 않도록 수리비를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함.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와 생활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함.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회성 행사보다 생활의 불편을 찾아 해소해 주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원하고 있음.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한층 더 Up-Grade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18(수) 16:20	차영조 의원	○ 과학영재학교 출범과 함께 대구의 우수한 과학영재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과학고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구·군을 상대로 유치제안서를 이달 20일까지 접수받아 내달 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함. 새로운 과학고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최근 자치단체 간의 과열양상은 교육의 본래 목표와는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최종 후보지 선정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최근 2월27일자 및 3월5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과학고 유치가 명문학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반목을 부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380여억원의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은 이해하나, 이를 빌미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돈을 쏟아 붓도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임. 새롭게 건립되는 과학고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하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18(수) 16:20	차영조 의원	대다수 분들이 우수한 면학분위기와 함께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립 후보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착공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는 부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새로운 과학고 건립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접근과 논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립 목적은 순수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봄. 새로운 과학고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2011년 3월에 과학영재학교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교될 수 있고 무엇보다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입지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남구의 대명배수지는 훌륭하고 손색없는 지역이라 생각함. 남구의 건립 예정지는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우수하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치 확정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특히, 남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필요한 자금을 자치단체 부담없이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임. 과학고위치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대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27(금) 10:08	김덕란 의원	○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복지보조금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 보조금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등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미국 발 금융위기로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시의 경우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3조 2,940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090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2%가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 이러한 복지급여는 각종 복지지원금 종류만 100여 가지나 되어 공무원들조차 지원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임. 또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거의 전국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복지예산횡령 비리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대구시에서도 구·군 자체감사를 통하여 감사하였으나 횡령·착복과 같은 비리는 없었다고 하나, 복지보조금이 실제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3. 27(금) 10:08	김덕란 의원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하여 총 6조원의 예산을 사회적 빈곤층에 전달할 예정이고 복지예산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에 복지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복지예산 횡령을 막기 위하여 집행부에 복지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시스템 도입을 촉구함. 둘째, 복지서비스부문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여야 할 것임. 셋째, 자체감사기구가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복지예산비리는 진작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경제위기로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기침체로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민을 생각해서라도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3.17)	2次 (3.18)	3次 (3.27)	
계	금 회					
	누 계	541				
학 생	금 회					
	누 계	46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9				
일반인	금 회					
	누 계	486				

第177回 臨時會

I. 集會 및 議事日程	99
1. 集 會 /	99
2. 會期 및 開議日數 /	99
3. 議事日程 /	100
II.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03
1. 接受現況 /	103
2. 處理現況 /	104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07
4. 繫留議案 /	110
III. 市 政 質 問	111
1. 質問現況 /	111
2. 質問內譯 /	112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27
1. 請 願 /	127
2. 民 願 /	129
V. 5分 自由發言 現況	130
VI. 本會議 傍聽 現況	139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기후는 절기를 잃은 듯이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어김없이 봄꽃은 만발하였고 나뭇가지에 초록이 더욱 짙어가는 좋은 시기에 제17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폐회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인들의 만류와 우려를 애써 외면한 채 인공 위성을 발사하고 실패한 후에 UN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입장에 처해있고, 또 전직대통령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과 언론 보도는 지난 정부의 도덕성만큼은 믿었던 우리 국민들을 놀라움과 서글픔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유래 없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애써 가꾼 살림들이 엄청나게 소실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2009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라톤경기를 먼저 펼쳐보여 준 멋진 대회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이 각 부분에서 1,2위의 성적을 거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자원 봉사와 응원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회코스 곳곳에서 보여준 거리응원은 힘들게 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민들의 단합된 저력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와 거리응원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긴 시간 동안 교통통제로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대회의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마라톤코스 주변의 경관개선과 교통통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을 해서 2011년 마라톤경기는 문제점 없이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8회 대구국제 광학전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노력 덕분에 2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물량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거래선을 다양화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2009 대한민국 그린에너지엑스포는 17개국 280여 업체가 참가하여 702개의 부스를 설치하여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로 급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관계부서에서는 아시아의 대표전시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희망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분야에서는 목표로 삼았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나무가 되기

를 기다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지금은 참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우리에게 성실·근면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만 있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또 대구의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달에는 2009 한·중 생활체육교류대회와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이 개최됩니다. 계획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우리 대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도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09년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연도 국비 예산의 신청기한이 통상 5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알뜰하게 수립하여서 2010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황사, 봄철 재해는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활동에도 강화를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건

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250만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라의 미래도 살려서 잘 사는 대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시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움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年 4月 14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김대현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9. 4. 3
- 개 회 일 : 2009. 4. 14
- 폐 회 일 : 2009. 4. 24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1일 (누계 : 395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3일 (누계 : 84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豫算 決算	其他
今 回	6	6		1	3	1	1		
累 計	461	392	26	85	89	83	109	41	28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4.14(화) 10:15	1. 제1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4.15(수) 10:0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5분 자유발언의 건
3次	4.24(금) 10:03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3次	4.24(금) 10:03	1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3.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나. 委 員 會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4.21(화) 10:13	1.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教育社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4.20(월) 10:14	1.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4.20(월) 10:14	3.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次	4.21(화) 10:05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 대구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4.21(화) 10:02	1.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4.20(월) 10:07	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Ⅱ．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域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5	10	8	2		5	
累 計	470	223	118	84	21	205	42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5	11	5	5	1		1		3
	累計	470	257	68	178	11	30	57	12	114
議 會	今回	10	7	5	2					3
	累計	223	82	34	48			24	12	105
大 邱 廣域市	今回	5	4		3	1		1		
	累計	205	146	31	105	10	17	33		9
教育廳	今回									
	累計	42	29	3	25	1	13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7	12	3	1	1	1
	누계	470	467	360	95	2	10	3
조 레	금회	11	11	7	3		1	1
	누계	257	254	167	77	1	9	3
예산·결산	금회							
	누계	30	30	15	15			
도시계획	금회		1	1				
	누계	9	9	9				
동의·승인	금회	1	2	1		1		
	누계	57	57	55		1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98	98	98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5	12	3			
	누계	455	455	360	95			
조 레	금회	10	10	7	3			
	누계	244	244	167	77			
예산·결산	금회							
	누계	30	30	15	15			
도시계획	금회	1	1	1				
	누계	9	9	9				
동의·승인	금회	1	1	1				
	누계	55	55	55				
건의·결의	금회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3	3	3				
	누계	98	98	98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都市 計劃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5	12		1	2			14	9	3	1	1	1
	누계	340	265	30	10	35			334	228	94	3	9	3
운영	금회													
	누계	30	30						30	24	6			
행정 자치	금회	6	5			1			6	5	1			
	누계	98	80			18			98	80	16		2	
교육 사회	금회	5	4			1			5	3	1	1		
	누계	79	70			9			78	59	15	1	3	
경제 교통	금회	2	2						1				1	1
	누계	45	38			7			43	21	19		3	2
건설 환경	금회	2	1		1				2	1	1			
	누계	57	47		10				54	28	23	2	1	1
특별	금회													
	누계	31		30		1			31	16	1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2990	대구뮤지컬전 용극장민간투 자사업채택동 의안	시장	교육 사회	○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민간투 자방식으로 추 진하고자 함	부결 (4.21)	
3022	대구광역시옥 외광고물등관 리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 시행령 개정에 따 라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옥외광 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질적향상 및 광고산업의 진흥 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수정 (4.20)	수정 (4.24)
3024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견	시장	건설 환경	○ 대구산업정보대 학내에 유아교육 학과 생태교육관 및 생태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해 학교부지 확장	원안 (4.20)	원안 (4.24)
3036	대구광역시경 로당활성화사 업지원에관한 조례안	박부희 의원 외6인	교육 사회	○ 경로당 활성화사 업을 위한 지원정 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수정 (4.20)	수정 (4.24)
3037	대구광역시북 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관 한조례전부개 정조례안	이재술 의원 외6인	행정 자치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시민으 로 건실하게 적 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안 (4.21)	원안 (4.24)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38	대구광역시각 종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일 부개정조례안	정순천 최문찬 의원 외6인	행정 자치	○ 위촉직위원의 경우 3개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 회중 2년간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 존속여부 검토	수정 (4.21)	수정 (4.24)
3039	대구광역시지 방공무원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 관외출장시 숙박 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원안 (4.21)	원안 (4.24)
3040	대구광역시주 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 국내거소신고한 재 외 국 민 에 게 주민투표권 부여 및 주민투표권자 의 연령을 공직 선거권자와 일치 시키는 등 관련 조문 정비	원안 (4.21)	원안 (4.24)
3041	대구광역시위 험물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원안 (4.21)	원안 (4.24)
3042	2009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시장	행정 자치	○ 대구국제학교건립 (변경) - 위치: 동구 봉무동 - 규모: 대지 16,845㎡, 건축 11,956㎡ ○ 서대구화물역부지매입 - 위치: 서구이현동 231-1일원 - 매입가액: 215억원	원안 (4.21)	원안 (4.24)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43	대구광역시 의 로운시민등에 대한예우및지 원에관한조례 안	이재술 의원 외6인	교육 사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 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규정	원안 (4.20)	원안 (4.24)
3044	대구광역시 평 생교육진흥조 례안	김의식 의원 외7인	교육 사회	○지역평생교육기 관들에 대한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도모 및 지역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함	원안 (4.21)	원안 (4.24)
3045	대구광역시 여 성인력개발센 터설치및운영 조례폐지조례 안	시장	교육 사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인 력개발센터가 민 간사업으로 전환됨 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원안 (4.20)	원안 (4.24)
3047	제177회 대구 광역시임사회 회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회기 - 2009.4.14~4.24		원안 (4.14)
3048	시장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 의건	김덕란 의원 외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교육감		원안 (4.14)
3049	회의록서명의 원선임의건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류병노, 전성배		원안 (4.14)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3035	대구광역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경제교통		2009.4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4名(累計 : 99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6	5	1
누 계	164	154	10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6	164
일 반 행 정		16
문 화 체 육	1	14
교 육	1	10
경 제 · 산 업	1	30
환 경 · 녹 지	1	11
상 · 하 수 도	1	7
보 건 · 복 지		6
교 통		23
도 시 계 획		15
건 설 주 택		25
소 방	1	2
기 타		5

2. 質問内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1.신천 실외빙상장을 어린이회관 내에 상설빙상장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어린이회관 내에 교통랜드 근처에 있는 인조잔디부지를 활용하거나 어린이회관의 녹지를 활용하여 상설빙상장을 만들 것을 제안함. 어린이회관부지 내에 빙상장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땅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필요도 없고, 어린이들도 자주 이용할 것이므로 어린이회관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며, 시내에 위치하는 만큼 수요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더욱이 김연아 선수의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우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빙상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진 만큼 상설빙상장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함. 두 번째,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테마	○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어린이회관에 테마박물관 유치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며, 어제 주무과장이 에디슨박물관, 강릉박물관을 직접 방문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우리 어린이회관의 활성화, 또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림. 첫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회관부지 내에 상설빙상장 설치하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어린이회관은 공원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현재 시설면적이 공원의 범위인 2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어린이회관 내에 상설시설을 하기에는 우선 법령상 문제가 있음. 두 번째, 상설빙상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정상적인 상설빙상장 설치하는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신천에 빙상장 설치문제, 어린이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김덕란	박물관 유치를 제안함. 현재의 어린이회관은 14만 7,558㎡의 부지에 1983년 11월 15일 개관하였으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시물로 인해 어린이회관 주이용자인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회관의 이용자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회관 내에 이용이 저조한 전시관의 일부를 테마박물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어린이회관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전시관 중 일부에 에디슨박물관을 유치해 대체할 것을 제안함. 대구에 각종 테마박물관이 유치·건립되면 명실상부한 테마박물관의 도시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대구는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한번 찾아와보고 싶은 관광도시로 변하게 될 것임.	회관이나 혹은 다른 데 상설빙상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림.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2.교원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일선교사의 상당수는 자신의 역할이 수업이나 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 교사들의 잡무부담은 심각한 수준임.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잡무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교원간, 학교 간 업무부담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교원 업무부담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음. 첫째로,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임. 둘째, 각종 쇄도하는 자료요청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부실함. 셋째, 초등학교 각종 준거단체 관리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임. 넷째, 체육교기 지도 업무의 부담임.	○교원 업무부담 과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임.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외에 각종 공문서나 보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현실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제안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2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무행정정보조원을 두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원업무나 학교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행정정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두 번째, 각 교원에게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업무초과량에 대해서는 인사, 재정상 보상을 하는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에 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교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교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다섯째로, 불필요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마땅한 업무를 교사가 하는 경우임. 지금까지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빚는 몇 가지 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자 함. 첫째, 2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정보조를 둘 수 있도록 검토바람. 둘째, 각 교원에게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업무초과량에 대해서는 인사·재정상 보상을 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각종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해당업무의 담당교원이 자기 분야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집계되고 통계자료화 될 수 있는 자동데이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업 등이	업무수행 실적이 많거나 우수한 경우에는 교원 근무성적평정 시에 우대하고, 교원성과급 지급 시에도 업무분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자동데이터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넷째로, 학교시설 청소나 체육교기 지도 등을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중 화장실 청소나 특별히 위험하거나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곳은 외부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청소하는 학교도 있으나, 청소도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실과 복도, 특별실 등은 학생과 담당교사가 함께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각급 학교 모두가 교내청소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다섯째로, 저소득층 자녀 신고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그들을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녀 신고의 경우는 이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업무를 구청으로 넘기거나 최소한 업무부담만은 줄일 수 있도록 해당 구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본연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임. 따라서 수업 외의 시간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준비를 위해 투자되어야지, 수업준비와는 별개의 문서 작성이나 행사, 전혀 상관없는 업무 등을 위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	업무를 구청으로 넘기거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구청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수업료, 급식비,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각종 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구청과 협의해서 학비지원 등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또한 각종 준거단체 관리에 따른 지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 등 6개의 청소년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특별근무하는 인센티브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지도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0학년도부터 청소년단체 활동시간 등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시행할 계획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교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1.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단독주택 평균 보급률이 44.3%인데 비해서 일부 구는 27%대로 지역 간 보급률에 격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 간 보급률 불균형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서 일부 시민은 에너지 기본권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도시 영세상인과 영세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비싼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은 타 에너지와는 달리 특정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에 따라 공급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의 확충을 위해 대구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저소득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며,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림. 정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공급관 설치비용을 공급자·사용자가 50대 50으로 공동부담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비 5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하고 있음. 우리시가 많은 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요금문제에 있어서 공급가격의 적정성, 시설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낮추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마지막으로 저소득 밀집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가스보급률을 높여 나가되, 특히 저소득 단독주택지역에는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시장)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수도권과 울산시에 비해서는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가격과 시설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비해 배 가까이나 공급가격이 높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대구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용량 배관에 대한 투자 등으로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나, 대구시만 유독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 분담금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정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지만 우리와 유사한 부산, 대전,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 지역보다도 일반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분담금 제도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는 정부의 법 개정 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행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시 배관 투자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용률을 적용하였음.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대용량 배관의 투자비용이 높고 가스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분담금이 타 시·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률을 낮출 경우 바로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당장에 투자비 회수부담으로 인해서 배관시설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기술산업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2.대구의 유일한 동물원인 달성공원 동물원이 지난 1970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적지 안의 동물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0년도에 동물원 이전을 위한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 계획에 따르면 68만 5,000여㎡의 공원에 각종 편익시설과 함께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을 만든 뒤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음. 이런 가운데 달성토성 복원과 공원정비사업이 제시되었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심활성화를 위해 동물원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아	○ 동물원을 이전하려고 하니까한 1,8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되고, 그동안 민자 유치를 위해서 일부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음. 달성공원의 동물원은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드림. 일부 언론에 팔공산에 임시로 동물원을 이전한다는 보도가 됐으나 실무선에서 동물원 이전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임시로 팔공산에 있는 사유지에 옮기는 것을 검토한 적은 있음. 그러나 제 생각은 임시 이전 자체가 7,80억원 돈이 들어가므로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도된 내용이 시 방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 (시장) ○ 동물원이 도시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기능과 필요에 지친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동물의 생육발달을 연구하는 연구기능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보존기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와 같은 250만 대도시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며,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지고 있음. 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달성토성 복원과 공원 정비도 중요하지만 대구시 계획대로 대공원 내 동물원을 조성하는 일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봄. 이러한 시점에서 대도시 내 동물원 조성은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구대공원 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이자 대구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3대 문화권 관광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물원 이전에 대해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에 대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 내에서의 동물원 운영문제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8년 대구대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고려하여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지구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동물원 시설을 계획하고 2000년 1월에 결정고시한 바 있음. 대구대공원의 동물원지구는 수성구 삼덕동 일원으로 구름골 전체의 면적은 68만 5,000㎡, 시설면적은 26만 4,000㎡이며,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1,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대구대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은 시 재정여건상 민자유치가 가능한 복합테마파크로 변경하여 다각적인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1.공직사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실지? 1,4-다이옥산 검출의 재발문제와 관련 시장께서도 강한 의지로 시민들의 먹는 물만큼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함.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갈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람. 문산정수장이 오는 9월에 통수되면 두류정수장은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폐쇄하겠다고 대구시가 얘기하고 있음. 그런데 무슨 근거로, 누구 마음대로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두류정수장을 시설용량이나 시설 노후나 별다른 정책의 변화 없이 폐쇄하겠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정당한	○취수원 이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대구시 먹는 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두 번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대안을 찾아나가자, 이 세가지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림.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겠으며, 공무원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표창 감경을 제외토록 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곡 및 문산정수장에 구축물, 전오존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8억원이 지난 2월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확보된 예산을 현재 집행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취수원 이전과 구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 혁신을 주장한 바 있음. 시설부장 1명에 과장 3명, 급수부장 1명에 과장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인 경영부장 1명에는 과장이 5명이나 되어 있음.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과 관련된 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더욱 중요한 행정과제요, 목표인데 경영부 산하에 5개의 과를 두고 운영할 이유는? 과연 적정한 인력 수요에 따른 직렬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정수장 계획 시에 두류정수장 폐쇄계획에 대해서, 정수장 적정시설용량은 1일 최대 생활용수 수요량과 소모수량, 예비율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환경부 상수도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음. 우리 시의 정수장 적정시설 용량은 140만 톤으로, 문산정수장 20만 톤을 포함한 생산시설 175만 톤에 비해 35만 톤의 과잉시설이 발생되게 됨. 따라서 31만 톤 생산을 할 수 있는 두류정수장 폐쇄를 추진하게 되었음. 또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두류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음. 매곡·문산정수장 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 예산 집행은 하지 않았음. 취수원 이전 결정과 더불어서 전처리시설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경영부는 3부 15사업소 864명이라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부서로서 전체인력의 약 5%에 해당하는 4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상수도행정 수요 변화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수도사업본부의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예상해 볼 때 달구벌 맑은 물이라는 병입수돗물 정책이 과연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최초의 계획은 경쟁적으로 지자체별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시판을 계획 중인 병입수돗물 제조·판매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구시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대구시에서 앞으로 병입수돗물 시판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입수돗물에 대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입수돗물에 대한 대구시의 확고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따라서 조직운영과 인력 관리에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해, 2003년 병입수돗물 생산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비상시 급수, 시민봉사단체 지원,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급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병입수돗물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기보다는 계속 생산·공급하는 것이 시민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음. 다만, 병입수돗물의 수질문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나 타 도시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낙동강 수계에서 댐 수계로 원수를 바꾸어 생산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 함. 두류정수장 폐쇄 시에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을 댐 수계 계통 정수장, 그러니까 고산이나 가창정수장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생산 시설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병입수돗물 시판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림. (상수도사업본부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1.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음.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대구시에서도 2,479건의 화재로 사망 20명, 부상 80명 등 100명의 인명피해와 69억 9,100만원의 재산상 손실피해를 입었음.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행정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주요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기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확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것임. 화재 예방과 진압에 가장 기초적인 소방관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시에서 현재 소방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배치 전 체계적인	○ 시에서는 우선 기본교육 이수 전이라도 화재진압,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임용 후 1주간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작년 10월에 소방본부에 안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했음. 소방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림. 교육 미이수자는 내년까지는 기본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경북소방학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우리 소방본부에 자체 소방교육대를 신설하는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시장) ○ 화재 출동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소방 종합상황실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119안전센터와 소방서에 일제방송을 통해 출동 지령을 하고, 주간에는 20초, 야간에는 30초 이내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 시는 도심의 경우 차량 평균 주행속도로 봐서 5분간 이동거리는 2.1km이지만 소방대원의 현장출동은 이보다 2.4배 빠른 5km의 속도로 출동을 하고 있음.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김덕란	기본교육 이수를 위해 세워둔 대책이나 자체 직무교육 전문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차 출동시간에 관한 것임.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화재출동 평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의로 위법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의 안전출동을 담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긴급차량의 5분 이내 출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세워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소외계층과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것임.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시설물 설치 등 관련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지난해에 3,228건을 단속해서 1억 3,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음. 소방관서의 신설을 통한 적절한 소방력 출동도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동구 팔공산 지역에는 공산 119안전센터를 신축 중이며, 달성군 지역 중 구지지역은 2010년에 구지119안전센터를 신축할 예정임. 화재출동시 각종 차량들이 피양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상 강제규정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홍보를 강화해서 제대로 피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음.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 등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쪽방,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해 4월 현재 489대의 소화기와 258대의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하여 서민생활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은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넷째, 소방서와 지하철 간 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함. 지하철 참사 이후 무선통신시스템은 기존의 아날로그 VHF방식에서 3각통화 및 기관 간 통화가 자유로운 주파수 공용통신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6년 지하철 1호선에는 TRS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지하철 2호선은 기존의 VHF방식을 개선해 사용하고 있음. TRS시스템을 도입한 지하철 1호선의 경우도 경찰과는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으나 소방본부와는 무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음. 지하철과 소방본부와의 무선통신망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소방방재청 시책사업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주택 무료안전점검과 의료서비스 제공, 소방시설 고장 수리반 운영 등 생활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대형재난 취약대상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지하철과 소방과의 무선망과 관련 현재 소방 무선통신망은 UHF방식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TRS 및 VHF 방식과는 상이하여, 상호 무선연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재난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3년부터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시까지 119종합상황실과 지하철 종합사령실 간 기 구축된 핫라인을 수시로 확인해서 사고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우리 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소방본부장)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 衛生	上下 水道	道路 交通	環 境	都市 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5				1	3	1

4.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查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 本會議 審查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產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7		2	1		2				2
累計	323	15	23	9	16	78	50	73	7	52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7	1	1	2	1					2
累計	323	30	35	13	48	36	74	31	31	25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7	5	3	1	1		2
累 計	323	245	146	14	30	55	78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7	7			
累 計	323	311	3	3	6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4		2					1		1
累計	39	1	11	2	5	3	4	5		8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 15(수) 15:45	차영조 의원	○ 정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이 약 6조 8,000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이 약 2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하여 지방정부 재정 수입에 비상이 걸렸음. 대구시 또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의 절반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채 발행은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또 다른 부담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건전하고 안전한 재정확보방안이나 자금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임. 대구시의 2008년도 일반회계 수입흐름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8,764억원, 2분기 5,325억원, 3분기 7,784억원, 4분기 8,914억원으로 1분기와 4분기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12월의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 15(수) 15:45	차영조 의원	경우 보조금 등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또한, 2008년도 일반회계 지출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5,211억원, 2분기에 5,802억원, 3분기에 7,339억원, 4분기에 6,987억원이 지출되었음. 분기별 자금수지를 보면 특정한 달에 수입이 집중되거나 지출이 집중되어 분기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현금수지현황의 주기적 패턴을 분석하지 못한 채 특정기간 내에 무조건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요한다면 일시적인 자금경색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대구시는 걱정된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재정지출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림. 2008년도에는 대구시가 국비지원 T/F팀을 발족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도 정부예산에 대구시 현안사업 1조 6,168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전년도에 비해 7,000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다고 대구시는 평가하고 있지만, 경북은 전년도보다 1조 8,000억원이 늘어난 4조 9,0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음. 지금부터 타 시·도와 차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밀릴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대구시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독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화함으로써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5(수) 15:45	차영조 의원	그리고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별도로 세입 감소를 막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2009년 2월 말 현재 대구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7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8억원이 증가하였음. 대구시는 5월부터 연 3차례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체납처분팀을 가동키로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음. 그러나 체납세 징수실적은 징수율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구시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임. 세원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조기집행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전에는 조금의 여유자금이라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지만 지금은 여유자금은커녕 채권을 발행하여 그 이자를 갚는데도 빠듯한 형편임. 세원 발굴, 세원 확보가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구시가 좀 더 노력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함. 또한 확보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림.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5(수) 15:50	송세달 의원	○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과 관련 대구시에서는 여전히 밀어붙이기식 교통행정과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먼저,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실시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교통행정에 관한 내용임. 대표적인 것은 약전골목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약전골목과 종로골목은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동아쇼핑을 오가는 일방통행로와 주변 골목길의 접근성도 취약해져 이면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 백화점 차량 진출입은 달구벌대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약전골목, 종로골목은 차량의 상습 지정체와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것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로 주변 대형 건물들에 대한 승용차 접근성이 불가능해져 부설 주차장의 진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임. 다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실시에 따른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에 관한 내용임. 교통관련 조사를 중앙로만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교통처리 대책 등의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함. 또한, 주변 상권이나 도시계획 측면에 대해서도 예산부족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5(수) 15:50	송세달 의원	등의 사유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와 사전분석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에 따른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이면도로의 회차공간과 주변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과 현대백화점 건립이 완료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교통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둘째,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중앙로 일대 이해관계인들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예견되는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셋째, 상권 활성화와 도시계획 측면 등에 대한 고려도 병행해야 할 것임.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도시중심화와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도심재생사업이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대구는 보행자 중심의 격조 높은 문화·상권 거리로 만들겠다는 이번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정책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5(수) 15:55	정해용 의원	○ 우리나라는 상주외국인수 100만 명, 한 해 방문 외국인수 700만 명, 교역 국가수 230국에 세계 10위 경제규모의 국가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영어 라디오방송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향후 자유무역체제 및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교류는 더욱 증가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역의 소식을 외국인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더욱 필요하게 됨. 현재 대구에서 청취가능한 영어방송은 AFN이 고작이며, AFN은 오로지 미국 군사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음. 또한, 많은 학생들이나 학습을 위해 영어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들은 지역의 소식을 영어로 방송하는 채널이 있다면 기꺼이 반길 것임. 국내 영어 FM방송은 2003년 제주도에 처음 시작해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 청취방송으로 자리 잡았음. 현재 대구시 등록 거주 외국인 수만 2만 명에 달하고 연간 10만 명의 숙박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인구와 숙박등록 이외의 방문외국인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늘어나는 외국인에 비해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5(수) 15:55	정해용 의원	대구의 생활 및 경제, 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구를 세계도시로 만들어 가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 더욱이 대구는 이미 세계로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속으로 대구의 이미지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다문화사회의 시각으로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대구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영어체험기회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이 대구시의 소식과 관련 자료를 영어로 청취하여 영어를 더욱 친숙하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봄. 뿐만 아니라 영어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됨.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 대전, 울산에도 올해 말경 영어 FM라디오의 개국을 허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영어 FM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구 거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의 영어체험 확대를 위해서 영어 FM방송 도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6(목) 10:05	차영조 의원	○ 대구시의 기업지원사업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림. 2008년 말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지역의 연구기관에서 대구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내용을 인용하겠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대구상공회의소에 이어 네 번째로 지역 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중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11.2%로 대구시보다 도움을 많이 주는 기관으로 응답되었으며, 대구테크노파크는 4.5%로 대구시보다도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음. 조사대상 기업들은 대구시의 기업지원정책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이용해도 효과가 없어서’란 순서로 응답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기업지원사업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대구시가 지난 1월12일 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한 이후 정무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구시의 현장 중심 행정이 지역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우려되는 바임.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제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4.16(목) 10:05	차영조 의원	조업은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과 자금 경색 및 부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었음.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 현장 중심 기업지원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들 기업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함. 지역 기업들이 대구시의 기업지원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이용해도 효과가 없어서’란 답변을 되새겨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기업들은 신용경색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음. 대구시는 매출액이나 기업규모와 같은 지표 이외에 다양한 기업 유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신규 투자, 기술개발, 특허취득 등을 위한 투자로 인해 미래가치가 향상될 기업이 재무제표상의 부채증가로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특별가점제도 등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함. 국제적 지식산업도시에 걸맞은 산업구조의 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기업 육성 정책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4.14)	2次 (4.15)	3次 (4.24)	
계	금 회					
	누 계	541				
학 생	금 회					
	누 계	46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9				
일반인	금 회					
	누 계	486				

第178回 臨時會

I. 集會 및 議事日程	146
1. 集 會 /	146
2. 會期 및 開議日數 /	146
3. 議事日程 /	147
II.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49
1. 接受現況 /	149
2. 處理現況 /	150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53
4. 繫留議案 /	155
III. 市 政 質 問	156
1. 質問現況 /	156
2. 質問內譯 /	157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67
1. 請 願 /	167
2. 民 願 /	169
V. 5分 自由發言 現況	170
VI. 本會議 傍聽 現況	173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푸른 생명이 가득한 싱그러운 5월에 제17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과 다문화사회가 일반화 되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 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만들 때만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외계층의 가정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매우 의미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어 확정된 정부의 평가기준이, 대구경북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반드시 우리 지역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냉정히 평가한다면 이제 겨우 우리 지역과 다른 자치단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달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정부는 지금 막바지 평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의료기관과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우리 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의 수능 성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대구는 2005년도 전국 3위 수준에서 2009년도에는 6위 수준으로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상위권으로 알고 있었던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의 성적 공개가 지역과 학교 간 서열화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금번의 수능 성적 공개를 지역 공교육 내실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지만 가뭄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민 21%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운문댐의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운문댐의 수돗물 생산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운문댐을 원수로 생산된 물을 먹던 일부 지역이 낙동강 물을 원수로 생산한 수돗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어디 것이든,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나, 수온은 차이가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수계조절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시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 집계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4,5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관계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신종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11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2008회 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결산검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첨단의료 복합 단지가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십시오. 우리 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年 5月 11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유영은 의원 외 9인
- 집회공고일 : 2009. 4. 30
- 개 회 일 : 2009. 5. 11
- 폐 회 일 : 2009. 5. 21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1일 (누계 : 406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3일 (누계 : 87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豫算 決算	其他
今 回	5	5		2		2	1		
累 計	466	397	26	87	89	85	110	41	28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5.11(월) 10:12	1. 제1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次	5.12(화) 10:04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5분 자유발언의 건
3次	5.21(목) 10:06	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2.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委 員 會

○ 行政自治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5.18(월) 10:25	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次	5.19(화) 10:08	1.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經濟交通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5.19(화) 14:04	1.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2次	5.26(화) 10:07	1. 대경교통카드 영업권 관련 보고의 건

○ 建設環境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5.18(월) 10:05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域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12	12	8	4			
累 計	482	235	126	88	21	205	42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12	8	2	5	1				4
	累計	482	265	70	183	12	30	57	12	118
議 會	今回	8	4	2	2					4
	累計	231	86	36	50			24	12	109
大 邱 廣域市	今回	4	4		3	1				
	累計	209	150	31	108	11	17	33		9
教育廳	今回									
	累計	42	29	3	25	1	13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2	12	11	1			1
	누계	482	479	371	96	2	10	3
조 레	금회	8	8	7	1			1
	누계	265	262	174	78	1	9	3
예산·결산	금회							
	누계	30	30	15	15			
도시계획	금회							
	누계	9	9	9				
동의·승인	금회							
	누계	57	57	55		1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4	4	4				
	누계	102	102	102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2	12	11	1			
	누계	467	467	371	96			
조 레	금회	8	8	7	1			
	누계	252	252	174	78			
예산·결산	금회							
	누계	30	30	15	15			
도시계획	금회							
	누계	9	9	9				
동의·승인	금회							
	누계	55	55	55				
건의·결의	금회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4	4	4				
	누계	102	102	102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都市 計劃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9	9						8	7	1			1
	누계	349	274	30	10	35			342	235	95	3	9	3
운영	금회													
	누계	30	30						30	24	6			
행정 자치	금회	5	5						5	4	1			
	누계	103	85			18			103	84	17		2	
교육 사회	금회													
	누계	79	70			9			78	59	15	1	3	
경제 교통	금회	2	2						2	2				
	누계	47	40			7			45	23	19		3	1
건설 환경	금회	2	2						1	1				1
	누계	59	49		10				55	29	23	2	1	2
특별	금회													
	누계	31		30		1			31	16	1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35	대구광역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김대현 권기일 의원 외6인	경제 교통	○개인택시 및 차량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원안 (5.18)	원안 (5.21)
3050	대구광역시시민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재술 의원 외6인	행정 자치	○ 통합 민원창구로서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콜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 (5.19)	원안 (5.21)
3051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재술 김덕란 의원 외4인	행정 자치	○ 명예시민증의 수여자 추천 및 결정 절차, 예우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	원안 (5.19)	원안 (5.21)
3052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 대구시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시정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능과 직급을 보강·조정하려는 것임	원안 (5.18)	원안 (5.21)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53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시장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 사무에서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	수정 (5.18)	수정 (5.21)
3054	대구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 도시 계획 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원안 (5.18)	원안 (5.21)
3055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류병노 의원 외8인	건설 환경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은 불허하되 이미 입지해 있는 정비공장의 증축과 개축등은 허용함	원안 (5.18)	원안 (5.21)
3057	제178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견	의장	본회의	○회기 - 2009.5.11~5.21		원안 (5.11)
305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	송세달 의원 외6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원안 (5.11)
306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견	의장	본회의	○서명의원 - 김영식, 유영은		원안 (5.11)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59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결 산검사위원선 임의건	의장	본회의	○시의원 : - 김대현, 이재술, 권기일 ○공인회계사 - 백경민, 문병우, 고진국, 이상혁 ○세무사 - 김대식, 성성환, 김준현		원안 (5.11)
3061	대구광역시 보 건의료산업육 성및지원에관 한조례안	양명모 의원 외6인	경제 교통	○메디시티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 성공적 조성 및 지역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제도 적 근거 마련	원안 (5.18)	원안 (5.21)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 업특별회계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3056	대구광역시재해영 향평가조례폐지조 례안	건설환경		2009.5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3名(累計 : 102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4	4	
누 계	168	158	10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4	168
일 반 행 정	1	17
문 화 체 육	1	15
교 육		10
경 제 · 산 업		30
환 경 · 녹 지		11
상 · 하 수 도	1	8
보 건 · 복 지	1	7
교 통		23
도 시 계 획		15
건 설 주 택		25
소 방		2
기 타		5

2. 質問内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1.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여전히 이들에 대한 부당행위나 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비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시책 발굴에 있어서 대구시 대책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것임. 업무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전담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둘째,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통제에 관한 것임. 민간단체 중 부적격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둔 대책과 민간단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한 방안 및 대구시와 민간단체가 어떠한 역할분담을 하여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특히 다문화 가족의 2세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 하며, 많은 정책대안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2006년 6월부터 현재 4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시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상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8년 12월에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현재 대구근로종합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음. 외국인 쉼터,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 앞으로 민간단체 및 외부의 의견도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 지원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문제는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특히 2세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시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셋째, 이주노동자가족지원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계획은? 넷째, 거주 외국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것임. 외국인 정기검진이나 예방 검진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사업과 프로그램 및 외국인 진료 전담병원을 지정하거나 단일 창구화하는 것이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섯째, 쉼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것임.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파악, 지도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 여섯째, 지역문화 공유 및 어울림 공간 조성에 관한 것임. 문화관련행사들이 일회성, 보여주 기식 행사란 지적에 대한 시의 입장은? 그리고 거주외국인과 시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일곱째, 미등록 체류외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중앙 각 부처의 업무조정 추이와 타 시.도의 사례를 좀 더 분석해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동체 가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부적격 단체의 난립방지와 민간 단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집행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차등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시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시정부는 모범적인 민간단체를 발굴.육성하고,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며, 정책 개발에 주력을 하고, 민간단체는 외국인 정서에 맞는 창의적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화행사 관련 지적하신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 식의 행사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이동희	국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임.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 강구하는 대책은?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민간단체에게도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음.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활동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문화적 공유를 위해 나라별 특색을 살린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나 공연장을 개설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음.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외국인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권상담 등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와 협조하여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불법체류자의 신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2.음식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 음식산업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기업, 지자체에서도 음식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위상 제고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고, 특히 다가오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지역 먹거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관광상품이면서 더 나아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전략에 대하여 첫째, 대구의 대표 음식이나 맛집 개발과 음식 홍보전략에 관한 것임. 대구시가 대구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홍보 전략은 무엇이며, 대구가 먹거리가 넘쳐나고 외식산업화가 잘 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둘째, 음식점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임.	○거주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고와 관련,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진료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대구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외국인 진료 전담병원 지정 및 단일 창구화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음식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연구원에 대구 음식산업 발전전략 용역을 의뢰한 바 이를 토대로 음식산업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 또한, 대구 대표음식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해서 연내 1~2개 품목으로 압축·확정을 짓고 이에 따른 표준식단 매뉴얼이라든지 조리법 개발 등 홍보마케팅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맛집책자에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직능단체나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음식홈페이지는 다소 늦었으나 유명 음식사이트라든지 한국관광공사 등에 연계하여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동희	대구시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음식점의 시설, 구조, 메뉴 개발, 종업원 예절, 서비스 교육 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대구지역 음식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이나 특히 외국인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하여 세워둔 전략은? 셋째, 음식 산업화에 관한 것임. 음식산업화에 대한 대책은? 음식산업 발전을 위해 인력보강이나 조직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으로 음식관광과 관련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략은? 대구음식과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가 세워둔 대책은?	외국인들이 보기 편하도록 개선하겠음. 두 번째, 음식점의 시설, 구조, 종업원 예절, 서비스 교육과 관련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100개 업소를 거점으로 육성해서 나머지 업소도 이 업소를 배워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올해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좌식 구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시설개선 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음식산업화에 대해 우리 시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산업 발전의 지속·체계적인 모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 식품산업안전담당을 신설코자 함. 가칭 대구음식포럼을 창립하는 방안도 민간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 끝으로 음식관광과 관련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영남권 여행상품과 연계한 음식투어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음. (보건복지여성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1.대구시의 물행정은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 나가야 함. 대구시는 2004년 발생한 1,4-다이옥산 사태 이후 2009년 1월 1,4-다이옥산 파동이 재현되기까지 합섬업체 10개 사업장과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1,4-다이옥산 농도가 항상 $50\mu\text{g/l}$ 이하로 유지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그동안 총 152회나 위반했음에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시민과 시의회를 속인건지? 2006년 퍼클로레이트가 노출되고 취수원을 이전하라는 대구시의회 요구가 있었을 때 취수원 이전 불가 결과를 추종하다가 중앙정부 용역에 의존하는 등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스스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물행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는 수질에 앞서 수량 확보가 우선 문제가	○ 현재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수도정비종합계획 용역을 이미 준 상태임.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대구 문제를 추가로 용역을 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용역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6월, 7월까지의 용역기관에서 기본구상을 완성하도록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음. 내년 정기국회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설계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답변드립니다. (시장) ○ 배출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1,4-다이옥산의 조속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음. 1,4-다이옥산 농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 통보해서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요청하고, 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에 긴급 방류량 증가를 요청해서 사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김충환	되고 있는데도 상수도 본부는 임기응변식 무책임한 대안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한심하기 짝이 없음. 상수도본부는 병입수돗물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전은 어떤 규모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대구시는 2008년도 유수율 목표를 86.5%로 정했다가 목표보다 0.3% 미달한 86.2%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수돗물 누수의 주범은 노후된 관로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관로 개체공사 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아까운 수돗물이 소리없이 새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구의 직결급수 추진 계획을 보면 대상건축물은 9,450개이며, 목표는 2008년 1,000개, 2009년 1,000개, 2010년 1,500개, 2011년 이후에 5,950개소로 되어 있으나, 좋은 물 공급을 위한 직결	보전에 관한 법률에 1,4-다이옥산 배출허용 기준 마련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상수원 오염시 오염물질 배출중단 긴급명령권 부여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최근 이상적인 장기 가뭄으로 금년 5월 10일 운문댐 저수율이 15%로 아주 낮아져서 지난해 저수율 44.1%에 비해서 29.1%나 낮아진 상황에 있으며, 현 상태로 수돗물을 계속 생산할 경우 5월24일 정도 추정을 하지만 취수가 곤란하게 되어서 부득이 6월 말까지, 그 안에 장마가 있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취수한계로 설정해서 생산량을 감수하고 급수구역을 조정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운문댐에서 취수해 오던 수량은 낙동강 수계로 조정 생산함으로써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림. 병입수돗물의 생산시설 이전에 대해서, 금년 9월 두류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현 시설 그대로 댐계통으로 이설해서 계속 생산 공급하는 것이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012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유수율 90%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충환	급수계획이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주택 수 전체 중 직결급수의 이용률은 27.5%, 물탱크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72.5%에 달하고 있음. 이것은 수도물을 보내는 정수장의 수질은 1급수가 되어서 양호하다고 하지만 관로를 통해서 물탱크까지 와서 물탱크에 잔류했다가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물의 이동경로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좋은 수도물을 공급받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이동경로임.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목표 유수율 86.5%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로 수입이 되는 요금수량이 2007년보다 약 280만여톤 아주 감소가 많이 되어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림. 유수율 향상사업으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소구역 누수탐사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을 2016년까지 389개소에 56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6년까지 노후관 124km를 392억원을 투자해서 개량하고, 소구역 누수탐사 등에 연간 39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누수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직결급수 개선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된 것은 직결급수공사 소요비용이 전액 시민 자부담인 자율적인 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기계획으로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향후 직결급수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공사비용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1.비문화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도시행정으로 도시 전체를 거대한 예술품으로 탈바꿈시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는 문화예술도시 대구로 재창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대구시는 KT&G 담배제조장을 예술창작공간인 문화창조발전소로 탈바꿈시키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노력은 대구를 문화예술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업대상 부지도 전체 부지로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현재 계획 중인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에 관해 입지 선정에 보다 신중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연콘텐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수립되면 국책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노력해 나가겠음.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은 건립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 등으로 현재 시의회의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임. 문화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첫째는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뮤지컬콘텐츠도 다른 도시에 뺏기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두 번째는 예산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며 마땅한 시유지도 없는 상황임. 또한 시에서 뮤지컬전용극장을 짓는 것은 경제성 등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봄. 그래서 다른 도시도 전부 민자로 추진이 되고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음. (시장) ○우리 시에서는 연초제조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겠다는 큰 틀 속에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송세달	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입지 선정에는 문화예술의 집적효과를 통해 대구시 문화예술정책에 폭발력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되어야 함. 현재 계획 중인 문화창조발전소의 연계선상에서 문화창작교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에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다면 불합리한 장소 선정에 더 이상 미련을 갖기보다 적정장소로 선택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며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이상과 같이 대구시도 문화와 디자인, 환경, 관광 등을 생산동력으로 삼아 근대산업 유산과 근대의 흔적들을 잘 보존하여 예술과 조화롭게 결합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대구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심재생의 핵심거점을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시범 사례로 추진할 계획임. 대구문화창조발전소는 대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의적인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적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사업대상을 전체 부지로 확대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은, 우선 별관창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은 입지 선정을 포함한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하였음. 부지 선정은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고,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음 (문화체육관광국장)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 衛生	上下 水道	道路 交通	環 境	都市 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5				1	3	1

4.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查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 本會議 審查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產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13	1		2		3		3		4
累計	336	16	23	11	16	81	50	76	7	56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13	2	3	1	1		2			4
累計	336	32	38	14	49	36	76	31	31	29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13	10	9			1	3
累 計	336	255	155	14	30	56	81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13	12		1	
累 計	336	323	3	4	6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1						1			
累計	40	1	11	2	5	3	5	5		8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5. 12(화) 15:17	차영조 의원	○대구광역시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는 용도지역의 세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인 국토해양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도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령과 중앙정부의 관련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전국의 모든 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의 종 변경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독 우리 대구광역시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5. 12(화) 15:17	차영조 의원	지역의 종상향 변경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장래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서의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로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대구시 전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임. 물론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대구시의 장래발전방향, 지역의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으나 특정지역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만으로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차원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에 대한 3차원적인 요소 등 대상지의 제반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5. 12(화) 15:17	차영조 의원	의한 용도지역의 범위에서만 묶이게 된다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이는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임.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업성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도시를 더욱 슬럼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 대상지 요건, 입지조건, 장래 발전가능성 등이 용도지역 상향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의를 통해 종상향이 가능토록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별도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대구시에서도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서는 주변여건,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의 사례와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침이나 업무지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5.11)	2次 (5.12)	3次 (5.21)	
계	금 회	25		15	10	
	누 계	566				
학 생	금 회					
	누 계	46				
시 민 단 체	금 회	25		15	10	
	누 계	34				
일반인	금 회					
	누 계	486				

第179回 第1次 定例會

I. 集會 및 議事日程	180
1. 集 會 /	180
2. 會期 및 開議日數 /	180
3. 議事日程 /	181
II. 議案接受 및 處理現況	184
1. 接受現況 /	184
2. 處理現況 /	18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	188
4. 繫留議案 /	192
III. 市 政 質 問	193
1. 質問現況 /	193
2. 質問內譯 /	194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212
1. 請 願 /	212
2. 民 願 /	214
V. 5分 自由發言 現況	215
VI. 本會議 傍聽 現況	223

開 會 辭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고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 중순에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대구광역시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결산검사를 받느라고 애쓴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달 참으로 큰 아픔과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서거와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온 국민을 아픔과 놀라움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적 제재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론을 모아서 국가안위를 위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함에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론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호국용사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그들이 지켜준 자유민주에 바탕한 시장경제의 꽃을 피워서 보다 잘 사는 나라, 또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8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우리 시가 요구한 프로젝트들이 대체로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낙동강과 금호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 문화, 녹색이 공존하는 워토피아(WATOPIA) 조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의료 R&D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상의 평가 자료를 작성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기상청에서 장마철의 시작과 끝을 예보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마는 예년의 사례를 보면 6월 하순이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한 취약지 안전점검과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 확립은 물론이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한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각종 재난을 거울삼아서 재난으

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심사하는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이번의 결산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심사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활기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年 6月 15日

大邱廣域市議會 議長 崔 文 贊

I. 集會 및 議事日程

1. 集 會

- 집회요구자 :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집회공고일 : 2009. 6. 5
- 개 회 일 : 2009. 6. 15
- 폐 회 일 : 2009. 6. 30

2. 會期 및 開議日數

가. 會期 : 16일 (누계 : 422일)

나. 開議日數

- 본회의 : 4일 (누계 : 91일)
- 위원회

區 分	計	常 任 委 員 會						特別委	
		小計	運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豫算 決算	其他
今 回	5	1	1					3	1
累 計	471	398	27	87	89	85	110	44	29

3. 議事日程

가. 本 會 議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1次	6.15(월) 10:14	1.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次	6.16(화) 10:09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次	6.17(수) 10:07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次	6.30(화) 10:11	1. 5분 자유발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안 9.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次數	日 時	審 議 案 件
4次	6.30(화) 10:11	10.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16.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나. 委 員 會

○ 運營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6.22(월) 16:03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6.24(수) 10:11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次	6.25(목) 10:05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승 인안
3次	6.26(금) 10:12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 尖端醫療複合團地誘致特別委員會

次數	日 時	審 查 案 件
1次	6.29(월) 11:06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업무보고

Ⅱ．議案接受 與 處理現況

1. 接受現況

○ 機 關 別

區 分	計	議 會				大 邱 廣域市	教育廳
		小計	議員	議長	委員會		
今 回	20	7	3	4		12	1
累 計	502	242	129	92	21	217	43

○ 種 類 別

區 分		計	條 例				豫算 決算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小計	制定	改正	廢止				
計	今回	20	11	3	8		3			6
	累計	502	276	73	191	12	33	57	12	124
議 會	今回	7	2	2						5
	累計	238	88	38	50			24	12	114
大 邱 廣域市	今回	12	9	1	8		2			1
	累計	221	159	32	116	11	19	33		10
教育廳	今回	1					1			
	累計	43	29	3	25	1	14			

2. 處理現況

가. 總 括

區 分		接 受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0	21	19	1			1
	누계	502	500	390	97	2	10	3
조 례	금회	11	12	10	1			1
	누계	276	274	184	79	1	9	3
예산·결산	금회	3	3	3				
	누계	33	33	18	15			
도시계획	금회	1	1	1				
	누계	10	10	10				
동의·승인	금회							
	누계	57	57	55		1	1	
건의·결의	금회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5	5	5				
	누계	107	107	107				

나. 本 會 議

區 分		附 議	處 理	處 理 內 容				繫留
				可 決		否決 (廢棄)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20	20	19	1			
	누계	487	487	390	97			
조 레	금회	11	11	10	1			
	누계	263	263	184	79			
예산·결산	금회	3	3	3				
	누계	33	33	18	15			
도시계획	금회	1	1	1				
	누계	10	10	10				
동의·승인	금회							
	누계	55	55	55				
건의·결의	금회							
	누계	12	12	11	1			
규 칙	금회							
	누계	7	7	5	2			
기 타	금회	5	5	5				
	누계	107	107	107				

다. 委 員 會

區 分		回 附							處 理					繫留
		計	條例 規則	豫算 決算	都市 計劃	同意 承認	建議 決議	其他	計	附 議		不 附議	撤回	
										原案	修正			
계	금회	16	12	3	1				15	14	1			1
	누계	365	286	33	11	35			357	249	96	3	9	3
운영	금회													
	누계	30	30						30	24	6			
행정 자치	금회	3	3						3	3				
	누계	106	88			18			106	87	17		2	
교육 사회	금회	2	2						2	2				
	누계	81	72			9			80	61	15	1	3	
경제 교통	금회	6	6						5	4	1			1
	누계	53	46			7			50	27	20		3	2
건설 환경	금회	2	1		1				2	2				
	누계	61	50		11				57	31	23	2	1	1
특별	금회	3		3					3	3				
	누계	34		33		1			34	19	15			

3. 主要議案 處理內容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56	대구광역시재 해영향평가조 례폐지조례안	시장	건설 환경	○「환경·교통·재해등 에 관한영향평가 법」이 「환경영향 평가법」으로 변 경하여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만 둬으로써 이 법률에 근거 한 조례를 폐지 함	원안 (6.18)	원안 (6.30)
3062	대구광역시도 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에관한조례안	이동희 의원 외7인	경제 교통	○ 도로점용공사장 의 교통소통대책 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정안(6.19)	수정안(6.30)
3063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교육감	예결위 (교사)	○결산액(단위:백만 원) - 세입 : 2,106,320 - 세출 : 1,797,675 - 잔액 : 308,645	원안 (6.24)	원안 (6.30)
3064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세 입세출결산승 인안	시장	예결위 (공통)	○결산액(단위:백만 원) - 세입 : 4,957,840 - 세출 : 4,390,975	원안 (6.26)	원안 (6.30)
3065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예 비비지출승인 안	시장	예결위 (공통)	○예비비지출액 : 1,741백만원	원안 (6.26)	원안 (6.30)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66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기업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방 세 세제지원 및 규정상 미비한 사항 보완·정비	원안 (6.18)	원안 (6.30)
3067	대구광역시지 방별정직공무 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행정 자치	○외국인의 지방별 정직공무원채용 가능 및 육아휴 직시 결원을 보 충할 수 있는 규 정 신설 등 일부 조문 정비	원안 (6.18)	원안 (6.30)
3068	대구광역시공 유재산관리조 례일부개정조 례안	시장	행정 자치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및 시행 령 개정으로 조 례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원안 (6.18)	원안 (6.30)
3069	대구광역시다 문화가족지원 에관한조례안	이재술 의원 외5인	교육 사회	○다문화가족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 합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	원안 (6.22)	원안 (6.30)
3070	대구광역시체 육시설관리운 영조례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교육 사회	○두류유도관의 명칭 을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으로 변경	원안 (6.18)	원안 (6.30)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7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경제 교통	○장학기금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조정함	원안 (6.18)	원안 (6.30)
3072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 및지원에관한 조례안	시장	경제 교통	○「사회적기업육성 법」에 따라 사회 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	원안 (6.19)	원안 (6.30)
3074	대구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경제 교통	○「도시교통정비법」 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 용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정 비·보완	원안 (6.19)	원안 (6.30)
3075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 별회계설치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징 수조례일부개 정조례안	시장	경제 교통	○광역교통시설부 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부 담금의 분할납부 율을 조정함	원안 (6.19)	원안 (6.30)
3077	제179회 대구 광역시의회제 1차정례회회 기결정의건	의장	본회의	○회기 - 2009.6.15~6.30		원안 (6.15)
3078	시장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 의건	박돈규 의원 외7인	본회의	○출석공무원 - 시장		원안 (6.15)

議案 番號	議 案 名	提案者	委員會	主 要 內 譯	處 理 結 果	
					委員會	本會議
3076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 정안에대한의 견청취의견	시장	건설 환경	○ 변경결정안 ·구간:동구 울암동 경부고속국도~대 로1-19호선 종점 ·노선명:광로2-12호선→ 대로1-70호선 ·도로폭:40~60 → 31~60m	원안 (6.18)	원안 (6.30)
3079	회의록서명의 원선임의견	의장	본회의	○ 서명의원 - 이경호, 박정희		원안 (6.15)
3080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선 임의견	의장	본회의	○ 위원장 - 이경호 의원 ○ 부위원장 - 전성배 의원 ○ 위 원 - 김대현, 나종기 권기일, 박돈규 도재준, 정규용 이재술 의원		원안 (6.15)
3081	상임위원회위 원변경선임의 견	의장	본회의	○ 상임위 변경선임 - 류병노 의원 : 교육사회→건설환경 - 김충환 의원 : 건설환경→교육사회		원안 (6.30)

4. 繫留議案

議案 番號	議 案 名	上 程 日		繫留日	繫留事由
		委員會	本會議		
2737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7.8	
2926	대구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		2008.9	
3073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		2009.6	

Ⅲ. 市 政 質 問

1. 質問現況

가. 質問議員數 : 6名(累計 : 108名)

나. 質問件數

○ 對象機關別

區 分	計	大邱廣域市	教 育 廳
금 회	6	6	
누 계	174	164	10

○ 分 野 別

區 分	今 回	累 計
계	6	174
일 반 행 정		17
문 화 체 육		15
교 육		10
경 제 · 산 업		30
환 경 · 녹 지		11
상 · 하 수 도		8
보 건 · 복 지	2	9
교 통		23
도 시 계 획	2	17
건 설 주 택	1	26
소 방		2
기 타	1	6

2. 質問内譯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경호	1.도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첫째,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사업과 관련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다가구주택 매입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더욱 큰 문제는 매년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가로 비어 있는 100호에 대한 대책과 올해에도 200호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인지? 둘째,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죽곡2택지개발	○우리 시의 주택가격 또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볼 때 향후 4,5년 내에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0%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함. 그래서 정부의 100만호 건설계획, 8만 4,000호를 2017년까지 3만 4,000호로 조정을 해서 축소했다는 답변을 드림. 이 3만 4,000호에 대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정책 지원대상자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해 나갈 계획임. 지적하신 문제는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림.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리 주택시장, 또 우리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림. (시장) ○다가구주택 매입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밝힌 매입금액 상승원인은 2007년에서 2008년도의 경우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이경호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에 관한 질문임. 공공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5세대 중 분양 1,141세대, 임대 304세대로 분양아파트의 비율이 79%로 월등히 높음. 임대아파트 비율이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대구시의 주택정책 방향은? 죽곡 2 지구에 소형주택 물량은 배제한 채 미분양 물량과 비슷한 규모인 중형 위주의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분양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비와 관련 2지구의 공동주택 추정사업비가 1지구에 비해 높게 책정된 사유는? 적절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예상분양 가격은? 도시공사의 브랜드인 ‘청아람’ 대신에 D업체의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주택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준공 및 준공 후 1년 내의 신형 주택위주로 매입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함. 이 사업은 국비 45%, 국민주택 기금 50%, 입주자부담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나 도시공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는 않으므로 도시공사의 신형주택 위주 매입 방향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과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한 매입단가를 정하도록 지도하겠음.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사유와 관련 다가구 임대주택이 비록 정부 시책과 예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공가가 해소될 때까지 임대주택사업을 조정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죽곡2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임대주택 비율은 임대주택대지가 4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개발지구 업무처리 지침의 규정(면적 대비 40% 이상)에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도시공사 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죽곡2택지개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경호	상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셋째, 주택사업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질문임. 현풍2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 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지역의 H건설업체가 수주하였고, H건설사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1순위를 하자 H건설사는 개봉도 하지 않고 별도의 사유를 붙여 재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1차, 2차 전자입찰의 결과를 개봉하여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기업의 오너경영이 아니라 250만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함.	지구 내에 면적기준으로 보면 13%밖에 되지 않으므로 전체 규모 면에서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에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비율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겠음. 죽곡2지구 중대형 비중이 커진 원인은 분양단지인 B3, B4 블록 전체가 중대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때문으로 판단됨. 향후 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형평형 위주로 계획하도록 지도하겠음. 죽곡2지구 분양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B2 임대블록은 공급물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분양단지인 B3, B4는 현재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분양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정토록 유도하겠음. 죽곡2지구의 공동주택사업 추정사업비가 1지구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대하여, 세대당 추정사업비 상승원인은 1지구와의 사업시행 시차가 3년 정도 나며, 지가변동 상승, 도매물가 상승, 지하철2호선 개통 및 주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건축 관련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이경호		시설기준 강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 분양가는 공급 전에 결정하게 되는데 죽곡2지구의 B3, B4블록은 추후 공급시 1지구와 평형대별로 분양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타 지구에 건립하는 도시공사 공동주택의 원가 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음. D업체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공기업이 사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도시공사 브랜드 청아람을 사용하도록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음.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경위는 도시공사에서 파악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에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음. 마지막으로 도시공사가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도시주택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류규하	1.대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KTX 대구역 정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대구역의 쇠락은 자연스레 대구도심 경제권의 쇠퇴와 도심 인구 감소 및 슬럼화를 초래하여 도심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함. 이는 동대구역 일대를 부도심 또는 신도심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의 공간정책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쇠퇴하는 대구역과 관련하여 2개의 도심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전략사업들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최근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1%의 대구시민이 KTX 대구역 정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KTX 대구역 정차를 주민이 원하고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	○대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 대구역 정차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림. 철도공사에서 공문으로 회신해온 내용에 의하면 KTX 정차역은 고속철도 개통 시에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구역과 동대구역 간의 운행거리가 불과 3km에 지나지 않고 정차역이 이원화될 경우 이용객 혼란, 열차 운행의 비효율이 초래되어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왔음. KTX 대구역 정차문제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시장) ○2도심 정책은 지난 1997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전체의 중추관리기능을 중부도심과 동대구 신도심에 부여하여 상호보완기능을 수행하고자 2개 도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 시의 2도심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잘 추진하기 위하여 중부도심의 경우에는 도시중추관리기능, 업무중심기능, 전문상업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류규하	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지?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KTX는 하루 평균 편도 60여 편이 운행 중이며, 이 중에 동대구역을 출발역이나 종착역으로 하는 열차는 하루 평균 19편이 운행되고 있음. 이에 하루 평균 5만여 명에 이르는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유동인구만이라도 대구역과 동성로를 따라 도심으로 유입한다면 도심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심상권의 부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주장에 대한 생각은?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구 도심구간에 대한 경부고속철도 본선사업과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KTX 대구역 정차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도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KTX 대구역 정차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중심기능, 정보통신, 문화중심기능으로, 동대구도심의 경우에는 국제적 중추관리기능, 국제적 업무기능, 광역고속교통중심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심간 배분된 공간기능을 활성화하여 도심간의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우리 시는 대구 고유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개성 있고 활력 있는 도심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지난해 착수하여 금년 4월 기본구상을 완료함으로써 도심재생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음. 1단계 사업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대구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구역사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등 단기간에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부터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소요기간이 긴 국채보상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 내부 보행자 중심도로 설정, 지식테마창조형 도서관 건립사업 등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1.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무원들의 보조금 횡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보조금 집행 절차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투명한 집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나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복안은? 사회복지보조금 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조치가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 시의회에 두는 것이	○사회복지보조금 문제와 관련,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건의를 중앙에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6월 14일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제도적인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면서 시 자체적으로는 정기 및 수시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앞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은 물론이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 기초수급자 적격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6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음. 결식아동 전자카드 도입, 실제 계좌명의와 수급자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은행검색 의무화 제도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 그리고 감독 노력, 그리고 인력 보강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음. (시장) ○사회복지보조금은 기준 보조율에 의거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규정한 퇴소아동자립 장학금은 구·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차등 현상이 발생된 것임. 앞으로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김덕란	대구시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사회복지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활권인 대구시내에서도 보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음. 이러한 사회복지보조금의 지급 차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향후에도 2년 이상 지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을 계속할 계획인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전보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보호자나, 후원자가 납입을 하면 1:1로 국가가 매칭으로 17년간 장기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착되면 차등 지급되는 문제점들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 됨.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방안에 대해서 시는 올해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진단, 복지법인·시설의 지도·점검시행, 전문성 컨설팅 및 사기진작, 복지 주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5단계별, 시차별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관리·감독 적정인원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인력감축계획의 기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으로 해서 전담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만간 상황이 변화되면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림. (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년인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감사공무원은 6년으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대한 원칙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특별 행정조직이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과연 현재의 인원으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인지,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인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에 대한 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및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에 대한 정책적 견해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하고, 매년 감사요원의 50%를 감사교육원의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시에 감사요원 파견과 경북도와의 교차감사를 통해 감사능력을 제고하여 왔음. 감사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군 간의 교차감사문제는 구·군과의 간담회시 협의의 시행토록 하겠음. 감사관을 시의회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생각됨. (감사관) ○ 이번 사회복지직 전보인사는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예방을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금번 전보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보직이 바뀐 구·군의 13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황파악과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앞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김덕란		대한 인사원칙에 대해 사회복지업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하여 꾸준한 접촉과 상담, 사후관리 등 연속성과 전문성이 수반되는 업무로서 잦은 전보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따라서 금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보인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본적으로 구·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보인사는 구·군이 자체적으로 정한 3년 주기의 순환전보원칙과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자체 자정결의대회를 갖는 등 심기일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순환전보 주기를 지켜 인사운영을 하도록 구·군에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규용	1.최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5년여 이상이 경과된 지금 대구시 종세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난개발을 초래하고 주택시장을 교란시킨 민간업자의 경쟁적인 주택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대구시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조정작업을 위해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음. 작년 11월에 종세분화 조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용역을 발주했어야 할 것인데 종세분화 조정작업을 위한 용역 발주를 이렇게 늦추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종세분 조정작업이 정치·경제·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내년 1월에 마무리할	○종세분 평가에 대하여 성공, 실패로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함. 어쨌든 5년이 경과되어서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으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음.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지혜를 모아주셔서 슬기롭게 대응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도 중에는 저희가 오히려 용역이 빠른 편임. 전반적인 도시 아파트 미분양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여건에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음. 근본적으로는 대구경제가 활력을 찾고, 부동산경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은 공공부분에서 발주를 대폭 늘려서 건설경기를 유지해나가면서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림. (시장) ○민간사업자의 경쟁적인 주택사업의 사전 조정과 통제방안 등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주택정비구역 지정, 주택종합계획 등을 통하여 민간주택사업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규용	계획으로 있는 이번 작업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종세분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종세분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노후·불량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들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지난 2008년 6월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이 대구시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시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 이번 종세분 조정작업에서는	을 간접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정비함에 있어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했으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는 종합적인 분석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기준과 원칙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기준을 근간으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을 경우 금번 용역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종세분 정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종세분 정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중·장기 주택의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며, 주택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각주체들이 주택수급에 필요한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규용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둘째,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시 다양한 정비방식의 모색이 필요함. 셋째, 도시계획사전 협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넷째, 이번에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조정뿐만 아니라 대구시 기성시가지 관리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성시가지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주장과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구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자 2008년 3월부터 67km²의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 대구시의 도시자연공원 정비의 기본방침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로 활용하여 주택수급 조절기능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됨.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종상향을 허용할 경우 도시계획적 측면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주택국장) ○ 도시자연공원 정비의 기본방향은 2007년 2월 국토해양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에 적합한 최소한의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보건·휴양에 필요한 녹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환경녹지국장)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1.저출산 해소 정책과 관련,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의지와 향후 출산장려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아동수당과 관련 타 자치단체처럼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대구시의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출산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 관련 국·공립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향후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현재 대구지역의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이들을 위한 취약	○최근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범시민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여기에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음. 대구맘이란 인터넷 카페에 우리 시 차원에서 도울 것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음. 셋째 자녀 시책을 둘째 자녀로 당겨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을 시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안, 보육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시책들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올해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 미만의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급대상도 확대하고 가능하면 당기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림. (시장)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 2008년 말 현재 99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보육시설은 몇 개소나 있으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대구시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취약아동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보육 대상자녀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충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특별활동비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구시만의 차별적인 보육정책이 있는지? 가정보육제도나 지하철역세권 보육시설운영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는? 대구시 보육행정과 관련 현재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보육아동계를 두어 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일개 담당계로 두기보다는 보다 독자적인 보육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통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취약보육아동의 이용시설 현황과 보육대책에 대해, 대구 지역에 현재 만 12세 이하 장애아는 2,345명이며, 6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1,230명이 되겠음. 장애아의 경우 장애전담 통합시설이 34개소에 890명이 현재 이용되고 있고, 일반시설에는 270명을 포함해서 1,160명이 현재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임.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99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대부분이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보육시설 이용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를 보면 90% 정도 해당되는 가정의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충되어 나갈 예정임. 보육취약가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이후에 장애전담시설 2개소를 설치했고, 24시간 보육시설 2개소를 지정했음. 또한 시간연장시설은 68개 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육시설 특별활동비 관련한 불만해소 방안에 대해 보육시설에 구성되어 있는 보육위원회

質問議員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答辯者)
정순천	별도 보육정책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출산고령사회과에서는 보육정책만 담당하고 아동복지업무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정책은 이제 국가와 지방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정책이 되어 버렸음. 이런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육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대구시는 보육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숭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와 학부모 간의 상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과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납한도액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에서 지도·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해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장애전담시설에 대해서 매년 500만원 상당의 장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음. 가정보육제도, 지하철역세권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과에 분장되어 있는 아동업무는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됨. 향후 시 전체 조직개편 시에 이런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별도 보육정책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인력 통제를 받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보건복지여성국장)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박돈규	1.대구교도소 이전지역으로 잠정 확정된 감문동은 향후 하빈의 장기발전과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미래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할 땅임. 그 이유는 첫째, 하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하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둘째, 잠정 확정된 이전부지는 지역의 핵심 교육시설인 달서중·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교도소 진·출입 동선이 일치하고 있음. 셋째, 낙동강이 인접한 천혜의 청정 지역일 뿐 아니라 600년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임. 넷째, 화원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곽에 이루어져야 함. 즉, 하빈면 내에서도 외곽으로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임. 교도소 이전지역으로 잠정 확정된 감문동은 교도소로 채워야 할 땅	○지난 6월 15일 하빈면 하산리 주민 등 315명으로부터 외곽지 제3의 후보지 모색을 요청하는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며, 시로서는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하빈면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검토 용역을 주었으며, 이 용역에서 나오는 방안,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달성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시에 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시장) ○교도소를 이전코자 하는 감문2리 지역은 하빈면 소재지로부터 서쪽으로 2km 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 하빈면 인구의 현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하면 개발에는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달서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동선과 교도소 진·출입 동선이 부분적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달서중·고등학교와 감문2리 교도소

質問議員	質問要旨	答辯要旨(答辯者)
박돈규	이 아니라 하빈의 장기 발전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할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시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문동에 교도소를 입지시키는 것이 하빈면 다수 주민들에게 과연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입지 선정을 법무부의 입장에서 법무부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도소 입지 선정의 신중한 재검토를 재촉구함. 교도소 입지선정을 재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부지와는 약 600m 정도 야산으로 분리되어 있음.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육신사 및 낙동강 연안 체육공원과 감문동과는 2.3km~3.6km 정도 이격되어 있음. 하빈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도소 직원 수는 620명, 수용인원은 2,300명 정도, 약 3,000여 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시설이며, 월평균 15,000여 명의 시설 방문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하빈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 확충,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등으로 하빈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의견은 당초 계획상 2015년 이후 이전검토 대상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유치 건의와 달성군 이전후보지 추천에 의하여 교정시설 이전부지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당겨 추진한 사업인데 위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된다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빈면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도시주택국장)

IV. 請願 및 民願處理 現況

1. 請 願

가. 接受現況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 團體
		小計	1人	2~9人	10~99 人	100人 以上	
今 回							
累 計	5	5	1			4	

○ 分 野 別

區 分	計	保健 衛生	上下 水道	道路 交通	環 境	都市 計劃	其 他
今 回							
累 計	5			2		1	2

○ 委員會別

區 分	計	運 營	行政 自治	教育 社會	經濟 交通	建設 環境	特別
今 回							
累 計	5				1	3	1

4. 處理現況

○ 總 括

區 分	接受	處理	處 理 內 容					未處理
			處 理			不採擇 不受理	撤回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5	5		3		2		

○ 委員會 審查結果

區 分	回 附	附 議 與 否		未 處 理
		附 議	不 附 議	

○ 本會議 審查結果

區 分	附 議	採 擇 與 否		處 理 方 法			繫 留
		採擇	不採擇	議會 處理	市長 處理	他機關 移送	
今 回							
累 計	3	3			3		

2. 民 願

가. 接受現況

○ 分 野 別

區分	計	經濟產業	教育文化	保健福祉	環境綠地	都市計劃	交通	建設	上下水道	其他
今回	8				1	2	1	3		1
累計	344	16	23	11	17	83	51	79	7	57

○ 地 域 別

區分	計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達城郡	其他
今回	8	1	1				1	2	2	1
累計	344	33	39	14	49	36	77	33	33	30

○ 提出者別

區 分	計	個 人					機關團體
		小計	1人	2~9人	10~99人	100人以上	
今 回	8	7	4			3	1
累 計	344	262	159	14	30	59	82

나. 處理現況

區 分	計	處 理			
		處理	不受理	取下	他機關移送
今 回	8	8			
累 計	344	331	3	4	6

V. 5分 自由發言 現況

가. 分野別 內譯

區分	計	一般 行政	經濟 產業	文化 體育	保健 福祉	環境 綠地	都市 建設	交通	上下 水道	其他
今回	3			1			1			1
累計	43	1	11	3	5	3	6	5		9

나. 發言要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15	박부희 의원	○ 신축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각종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곳곳에서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주택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4년에서 2008년 각종 주택사업을 통해 총 6만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이 중 달서구에 31.5%인 2만여 세대, 수성구에 27.5%인 1만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음. 신축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 문제, 둘째,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련 문제, 셋째,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15	박부희 의원	허위·과대광고, 부실시공, 하자보수 등 사업자와 입주예정자간의 마찰 문제, 넷째, 지역주민간의 갈등 문제 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입주 후까지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유형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민원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각종 민원이 증가하면서 접수된 민원 중 신축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신축아파트 사업 관련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분양당시 홍보와 입주시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준공승인 연기·저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둘째, 대규모 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아파트 진입로의 일부구간이 곳곳에서 미개통되거나 학교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셋째,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아직도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자의 소유권 등기에 어려움이 예상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15	박부희 의원	됨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이나 정식준공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시위가 벌어진 바 있음. 첫 번째로 제시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문제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사업자에게 홍보용 팜플렛 제출을 요구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건축허가 도면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사례로 제시한 대지 소유권 분쟁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허가를 내준 경우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사전에 민원발생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발생 이후 대구시는 어떻게 대처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왔는지? 대구시 본청은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구청으로 떠넘기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써 서류상의 민원처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법대로 했으니 책임이 없다.”라는 태도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대책도 사후 조치도 너무나 미흡한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량한 대구시민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함.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20	권기일 의원	○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호국보훈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의식교육과 애향심 고취에 대구시와 교육계가 좀 더 활발한 논의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 나라를 지키는 일에 시기가 있을 수 없듯이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또한 정해진 시기가 있을 수 없음. 그러나 6월 한 달을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것은 6월 한 달만이라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몸바치신 호국영령에 대해 다시 한번 이들의 공적을 기리고 이들의 뜻을 이어 지역민들의 애국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호국보훈의 의미는 고사하고 6월이 무슨 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앞섬.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지역에 대한 애향심 등의 전통적 가치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청소년들의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만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할 부분일 것임.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들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20	권기일 의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역사를 과거의 일로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예우할 것은 예우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함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형식적이거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함. 보훈의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기본의무임. 우리 모두가 애국애족에 바탕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생활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호국보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지역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며,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이 단순한 물질적 보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잘 알 것임. 우리 세대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역사 의식, 지역사랑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음. 청소년들의 문화와 성향에 맞은 호국보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흔들릴 수 없는 보훈정신을 심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선시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가치 교육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임.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25	도이환 의원	○ 대구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와 관련한 공무원의 안일한 행사준비와 미숙한 행사진행 등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함.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까지 2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 그간 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면 항상 집행부는 모든 게 다 차근차근 나아지고 있다고 대답을 함. 심지어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던 작년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 조차도 어떠한 민원도 제기 받은 적이 없으며, 외부 평가는 평탄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음.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6월 20일에 개최된 대구경북 시도민 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정책이 성공 했는가, 실패 했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원래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에 관한 것일 것임. 시도민 육상선수권대회의 목표는 육상 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넓히고 육상부를 조성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한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음. 육상선수권대회의 원래 참여예상 인원은 3만 1,100여명으로 초청인사 500명, 선수·임원 1,100명 그리고 일반관중은 2만 9,500여명이나 되었으나 실제 이날 경기장에 급히 동원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일반 관람객은 고작 1,000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25	도이환 의원	여명에도 못 미쳤음. 텅 빈 관람석에는 각 지역의 플랜카드만 자리를 차지하고 본부석의 심판, 동료선수, 임원이나 가족 500여 명만이 그 큰 공간을 메우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경기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태도였음. 개회식이 시작될 때에는 자리를 메우고 있던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개회식이 끝나고 이석하시자마자 관련 담당공무원 한 두명, 그리고 조해녕 조직위 위원장님과 문동후 상근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시 이동교 예산담당관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빠져 나가버렸음.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관만 해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시·도 육상연맹, 2011대회조직위 등 소수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석을 해 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믿어지지 않음. 관람객 뿐 아니라 실제 경기운영상에서도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음. 대회 당일 날씨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을 잡아 우천으로 인해 일부 학생부 경기는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선수참가 자격이 2009년 3월 현재 등록선수는 제외되어 비등록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부 경기에서는 상당수 학교들이 부정선수를 참여시켜 적발되기도 하였음. 경기에 참여할 일반

日 時	發言議員	發 言 內 容
6.30(화) 10:25	도이환 의원	학생이 없어 전문선수를 출전시켜 경기 중간중간 참여선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였음. 또한 재정운용내역을 보면 육상봄 조성과 육상 꿈나무 발굴 등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시상금이 수여 되다보니 일반학생이 아닌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참여한 단체들이 조직위에서 경비를 대부분 지원받아 참석하는 등 원래 의도했던 행사취지도 많이 퇴색한 것처럼 보여졌음. 결국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무관심, 미숙한 경기 운영, 관계공무원들의 이석, 예산낭비성 행사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만을 제기한 채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는 이루어졌다고 말을 함.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이유는 조직위와 일부 단체들만이 참여한 “그들만의 리그”가 목적이 아니라 육상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일 것임. 지난 2년 동안 개최한 여러 행사들에게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 평가하여 이제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때인 것임. 두 번 다시는 수억의 예산을 소모하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VI. 本會議 傍聽 現況

區 分		計	1次 (6.15)	2次 (6.16)	3次 (6.17)	4次 (6.30)	
계	금 회	11		1	10		
	누 계	577					
학 생	금 회						
	누 계	46					
시 민 단 체	금 회						
	누 계	34					
일반인	금 회	11		1	10		
	누 계	497					

議 政 報 告 書 <第51號>

(第175回~第179回)

발행일 : 2009년 8월 일

발행처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전화 : (053)803-5053

FAX : (053)803-5046

<비매품>

